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외교학석사 학위논문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정민기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지도교수 신범식

이 논문을 외교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정민기

정민기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박종희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정환 _____ (인)

위 원 _____ 신범식 _____ (인)

국문초록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구 및 지역 질서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특수한 관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지구 및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작은 네트워크로써 복합적 특성을 띠는 세 쌍의 양자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로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복합적 특성'이란 관계 당사국 사이에 협력·갈등·경쟁의 요인이 모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고정적이기보다는 관계적·과정적이며, 주어진 것이 아닌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계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발전과정을 탐구하기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의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동과 그에 대한 개별국가의 인식, 그리고 세 쌍의 양자관계의 조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발전과정을 단계별로 추적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작동기제인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프로젝트의 실천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러시아·인도·중국은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단계에서 양자적·삼자적 차원에서 갈등·경쟁 요인에 대해 조율을 해나갔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도·중국은 삼자적 차원에서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구축하고,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지는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단계에서 러시아·인도·중국은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국제정치적 비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실천 단계에서 러시아·인도·중국이 SCO와 BRICS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SCO와 BRICS의 확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요어: 러시아, 인도, 중국, 중앙 유라시아, 전략적 관계, 전략적 동반자관계,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학번: 2020-22918

목차

Ⅰ장. 서론 ····· 1

1절. 문제제기 ····· 1

2절. 기존연구검토 ····· 5
1) 이론적 논의 ····· 5
2) 사례연구 ····· 8
3) 기존연구의 한계 ····· 9

3절. 연구방법 ····· 12
1) 연구방법 ····· 12
2) 사례 및 시기 설정 ····· 14
3) 논문의 구성 ····· 17

Ⅱ장.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이론적 검토 ····· 18

1절. 전략적 관계 정의 ····· 18

2절.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 20
1)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의와 특징 ····· 20
2)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정의 ····· 22
3)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기제 ····· 25

3절. 소결 ····· 29

Ⅲ장.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동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발전과정 ····· 31

1절. 1997-2022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 ····· 32
1) 1기(1997-2004): 미국의 지역 질서 재편 노력 ····· 32
2) 2기(2005-2009): 미군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새로운 질서의 모색 35
3) 3기(2010-2014):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재편기 ····· 36
4) 4기(2015-2022): 주요 지역 국가들의 부상과 다(극)지역질서의 추동 ·· ····· 40

2절.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발전과정 ··· 43
1) 러시아·인도·중국의 대외질서 인식과 전략 ····· 43
2)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인도-중국 관계의 조율 ····· 53
3)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단계별 발전 ····· 67

3절. 소결 ····· 70

Ⅳ장.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형성 및 작동기제 ····· 74

1절.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 75
1) 경쟁·갈등 요인의 조율 ····· 75

2)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 77
3)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 논의 ····· 82

2절.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 86
1) 전략적 비전 ····· 86
2) 안보적 이익 ····· 88
3) 경제적 이익 ····· 90

3절. 프로젝트 실천 ····· 92
1) SCO ····· 92
2) BRICS ····· 96

4절. 소결 ····· 101

V장. 결론 ····· 102

참고문헌 ····· 105

English Abstract ····· 131

<표 목차>

<표 1-1> ····· 14
<표 1-2> ····· 17
<표 2-1> ····· 28
<표 3-1> ····· 71
<표 3-2> ····· 72
<표 4-1> ····· 81

<그림 목차>

<그림 1-1> ····· 2
<그림 1-2> ····· 4
<그림 1-3> ····· 6
<그림 2-1> ····· 25
<그림 5-1> ····· 100

Ⅰ.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본 연구의 목적은 탈냉전 이후 중앙 유라시아에서 나타난 러시아·인도·중국[1]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형성 과정과 성격을 규명한 뒤, 그것의 작동기제를 탐구하는 것이다.[2]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러시아·인도·중국이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전략적 상호작용의 동학을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지구 및 지역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작은 네트워크로써 복합적 특성을 띠는 세 쌍의 양자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복합적인 특성이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관계 당사국 사이에 협력·갈등·경쟁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고정적이기보다는 관계적·과정적이며, 주어진 것이 아닌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강대국인 러시아·인도·중국은 지역 내에서 국익 추구를 위한 자율적 공간을 확보하고 역외 세력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1997년 러시아의 프리마코프(Yevgeny Primakov) 외교부 장관의 제안 이후 논의의 대상이

---

1) 국가 나열의 순서는 공식문서에서 나타나는 러시아어 및 영어 표현을 따랐다. 통상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는 러시아어로 'РИК(Россия·Индия·Китай)', 영어로 'RIC(Russia·India·China)'으로 표현된다.

2) 본 연구에서 중앙 유라시아는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일부 국가들로 구성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중앙아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구소련 5개국과 아프가니스탄으로 구성되며 남아시아는 인도와 파키스탄 등으로 구성된다.

3) Kent Calder, *The New Continentalism: Energy and Twenty- First- Century Eurasian Geo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2), pp. 213-216.

되었던 러시아·인도·중국 간 삼각 협력은 2005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회의를 통해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 공식적으로 삼국의 대외정책적 차원에서도 인정되었다.[4]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장관들은 세 국가 사이의 전략적 관계 강화가 이들의 장기적인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장기적으로 삼국 협력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킬 것도 다짐하였다.[5] 이후 2021년까지 러시아·인도·중국은 세 번의 정상회담과 18번의 외무장관 회의를 진행하며 삼자 간 전략적 협력의 의지를 이어오고 있다.[6] <그림 1-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러시아·인도·중국은 외무장관 회의에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집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단어들은 통상적인 외교 성명(statement)에서 자주 쓰이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러시아·인도·중국은 지구·지역적 수준에 존재하는 다양한 국제정치적 현안들에 관한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그림 1-1> 2005년 이후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정상회담 키워드 분석

4) Stephen Blank, “Primakov's Russia/India/China Triangle Nears Realization,” *Eurasia Daily Monitor*, Vol. 2, Issue. 79 (2005).
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informal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India, Russia and China,”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6) 2022년 11월 7일 기준.
7) 본 연구는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지난 2005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삼국 외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의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추출(text mining)’하였다. 그리고 자료에서 등장하는 단어를 그 빈도에 따라 상위 100개까지 정리하였다. 본 연구는 텍스트 분석 과정에서 ‘러시아’, ‘인도’, ‘중국’, ‘장관’, ‘대통령’ 등과 같이 회의 및 회담 대상 국가, 참석자의 호칭 등은 분석 단어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파이썬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서두의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적 틀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 **러시아·인도·중국의 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한편,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인도·중국을 둘러싼 지역 질서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이어진 미국의 중앙 유라시아 진출 및 영향력 확장 시도는 지역 질서를 크게 변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역 국가들의 반발로 인해 큰 성공을 거둘 수 없었고, 러시아의 국력 신장, 2000년대 후반 세계경제위기, 2010년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후퇴하게 되었다. 한편,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본격적으로 도래한 지정학의 귀환 시대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뿐 아니라 이들을 제외한 주요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도 이어지면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는 다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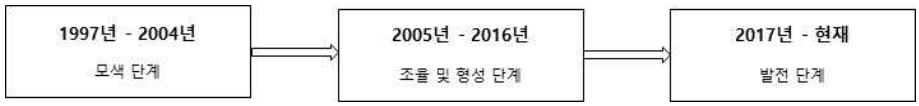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지역 질서 변화에 조응하며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상호작용도 몇 차례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는 세 국가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단계별 변화를 '모색 단계(seeking stage)', '조율 및 형성 단계(coordination and formation stage)', '발전 단계(development stage)'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우선, 모색 단계에 해당하는 시기는 1997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7년 프리마코프의 삼각관계 형성에 대한 초기 제안 이후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전까지 해당하는 시기로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에 구체적인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이러한 관계의 추동 가능성을 모색하던 때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블라디보스토크 회의가 열린 2005년부터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 가입이 이뤄진 2017년까지를 러시아·인도·중국이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형성시켜 나간 '조율 및 형성 단계'로 설정한다. 본 시기 동안 세 국가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구 및 지역적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는 양자적·삼자적 차원의 공동비전을 만들어 나갔다. 동시에 본 시기 동안 세 국가는 양자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삼각 협력의 지속을 위한 경쟁 및 갈등 요인에 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갔다.

끝으로 본 연구는 2017년 인도의 SCO 가입 이후의 시기를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발전 단계'로 설정한다. 인도의 SCO 가입을 통해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지구 및 지역 수준에서 삼각관계라는 최소 단위의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국제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미국 중심의 서구 질서에 대안적 질서를 모색하고 있는 SCO나 BRICS 확장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2>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발전단계



유라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 인도,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탐구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문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본 연구는 구조적으로 양극체제라는 정적인 특성을 띠고 있는 냉전기에 제시된 전략적 삼각관계'라는 틀을 넘어 탈냉전기 이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형성되고 지역이나 지구 질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함으로써, 관계 당사국 간 상호작용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러한 관계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더욱 잘 드러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 국가가 형성하고 있는 독특한 관계에 관한 탐구는 유라시아의 주

요 행위자인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이 보이는 독특한 대외적 행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8] 셋째, 러시아·인도·중국이 유라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는 국가 단위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 보다 넓은 차원에서 형성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탐구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9] 넷째, 본 연구는 지구와 국가를 매개하는 지역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국제정치적 동학을 살핌으로써 지역 개념을 정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최근 학계의 여러 시도에 추가적인 논의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10]

제 2 절 기존연구검토

본 절은 삼각관계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한 후 그것의 한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이론적 논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삼각관계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대부분 그러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행위자들 사이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자 캐플로우(Theodore Caplow)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1956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세 행위

---

8) Чжао Хуашэн, "Новый треугольник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Китаем, Россией и США,"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Vol 10, No. 2 (2019), p.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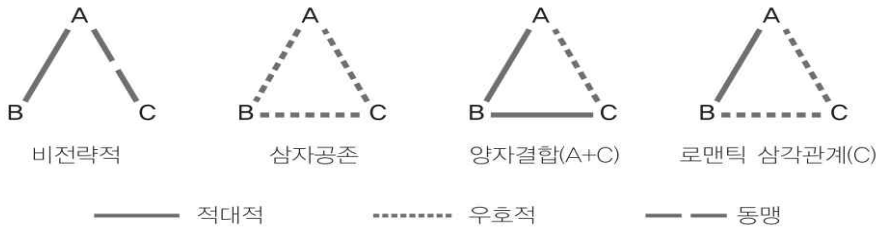
9) Chen Dongxiao and Feng Shuai, "The Russia-India-China Trio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02, No. 04 (2016), p. 433.

10) 최근 지역과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신범식,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아시아리뷰』11권 2호 (2021); 신욱희,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삼각관계—지역의 이론과 실천,"『세계정치 (Journal of World Politics)』26권 (2017).

자가 맺을 수 있는 여섯 가지의 삼각관계 유형을 제시한다. 그는 본인의 연구에서 행위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Strength)은 삼각관계 유형을 결정하는 변수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힘이 강할수록 상대 행위자에 대한 통제 의지를 가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상대에게는 힘이 강한 행위자보다 약한 행위자가 선호된다.[11]

이후 1990년대 초반에 디트머(Lowell Dittmer)에 의해 위와 같은 삼각관계가 국제정치를 분석하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1981년에 발표한 본인의 논문을 통해 냉전기 미국, 중국, 그리고 소련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한다.[12] 디트머에 따르면 세 국가가 형성할 수 있는 삼각관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림1-2> 전략적 삼각관계의 유형[13]



첫째는 세 행위자(A, B, C)가 모두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삼자공존의 관계(menage a trois)'이다. 둘째로는 두 행위자끼리 우호적인 관계(A+C)를 맺고 있으나 다른 한 행위자는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양자결합(stable marriage)' 유형이 있다. 세 번째는 중추적 행위자(C)가 두 국가(A, B) 사이에서 득을 보는(play off) '낭만적 삼각

11) Theodore Caplow,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No. 4 (1956).
12) Lowell Dittmer,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1981).
13) 백창채,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 외교,"『한국과 국제정치』27권 4호 (2011), p. 80의 그림을 사용하였음.

관계(romantic triangle)'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삼각형의 한 꼭지에 해당하는 특정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A-B), 다른 꼭지에 존재하는 제3국과(C)의 양자관계(A-C) 및 다른 두 국가 사이의 관계(B-C)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전술한 바와 같은 논리는 저비스(Robert Jervis)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는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행위자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14)]

이러한 틀은 냉전 시기 미국·중국·소련 관계를 시기별 특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소련-중국이 동맹을 맺고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던 1940년대 말부터 1960년까지의 시기, △1970년대 초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미국-소련 긴장 완화가 중국과 소련 사이의 관계 악화로 이어진 것, △1980년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 개선이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립으로 격화되었던 것 등은 삼각관계의 틀이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디트머에 따르면 상술한 바와 같은 전략적 삼각관계는 특정 국가의 생존과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국가의 합리적 판단에 기초하여 형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가치(Value)와 관계의 균형(Balance) 여부를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는데, 전자는 구체적으로 부정적(Negative) 가치와 긍정적(Positive) 가치로 나누어지며 후자는 대칭적(Symmetrical)인 관계와 비대칭적(Asymmetrical) 관계로 나눠진다. 그가 제시한 두 변수 중 가치는 두 국가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또 다른 변수인 관계의 대칭성은 국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캐플로우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듯, 국력(강함/약함)은 각국이 다른 국에 대해 자신의 선호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국력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호성(Reciprocity)의 비대칭성은 특정 국가의 선호를 바꿀 수 있고 이는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15)]

---

14) Robert Jervis,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7), pp. 177-209

15) Lowell Dittmer, 1981, pp. 486-490.

2) 사례연구

냉전 이후에도 세 개의 국가가 형성하는 관계의 동학을 삼각관계의 틀을 통해 살피고자 하는 여러 시도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유라시아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인도·중국의 전략적 삼각관계 관한 연구, △동북아시아에서 형성 가능한 전략적 삼각관계인 한국·미국·일본, 한국·북한·미국, 북한·미국·중국 등을 탐구하는 연구, △미-중 전략경쟁 시기에 나타나는 러시아·중국·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중국·미국, 독일·중국·미국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지역 및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6]

한편, 본 연구의 분석 단위에 해당하는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에 관한 연구도 1997년 프리마코프의 구상 이후에 활발히 수행되었다.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기존연구들은 주로 삼자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통합요인과 그것의 와해를 이끄는 균열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합요인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미국 요인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는 탈냉전 이후 미국 주도의 일극 질서가 확립되는 것에 대항하여 세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다극질서 창출을 이루기 위한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17]

한편, 미국 요인을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의 균열요인으로 본 판

---

16) 관련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 정성철,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22). 주동진,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국제정치논총』 58권 4호 (2018); Ananya Chatterjee, "India-China-United States: the post-Cold War evolution of a strategic triangle," *Political Perspectives*, Vol. 5, No. 3 (2011); David Shambaugh, “The new strategic triangle: US and European reactions to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3 (2005); Sebastian Biba, "Germany'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om a strategic triangle perspective," *International Affairs,* Vol. 97, No. 6 (2021); Seongji Woo, “Triangle Research and Understanding Northeast Asian Politics,” *Asian Perspective*, Vol. 27, No. 2 (2003).; Thomas Graham, “China-Russia-US Relations and Strategic Triangles,” *Polis. Political Studies*, Vol. 6, No. 6 (2020).

17) Alxexander Salitsky, “China, India, Russia: Why a Strategic Triangle?,” *World Affai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Issues*, Vol. 5, No. 1 (2001); Julie Rahm, " Russia, China, India: A new strategic triangle for a new Cold War?,“ *The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Parameters*, Vol. 31, No. 4 (2001).

트(Harsh Pant) 연구는 미국이 세 국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삼자의 힘이 대미(對美) 균형을 이루기에 너무 약하기에 이들 사이에 전략적 삼각관계가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8] 러시아 학자들에 의해 탐구되고 있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은 삼국이 협력하거나 갈등을 빚고 있는 구체적인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된다.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는 지역 내 발생 가능한 안보문제 대처, 삼자 간 경제 교류 증진 등을 견인하는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 사이에 봉합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다양한 갈등 유발 요인은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의 정합성을 떨어트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19]

3) 기존연구의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삼각관계의 이론과 그것의 실제적 사례를 다룬 기존연구들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와 관련된 한계이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의 '전략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본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한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정의하겠으나, 본 연구는 전략적 관계를 '관계 당사자 간 상호작용의 영향이 그들을 넘어서는 관계'로 정의한다. 이를 국제정치에 적용해보면, 국가 사이의 전략적 관계란 '관계 당사국 사이의 상호작용 영향이 적어도 제3국, 더 나아가 지역이나 지구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삼각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자 간의 상호작용이 제3국에만 미치는 '국가 간 정치'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에 반해, 이러한 삼각관계가 특정한 지구/지역 질서 속에

---

18) Harsh Pant, "The Moscow-Beijing-Delhi 'strategic triangle': An idea whose time may never come," *Security Dialogue*, Vol. 35, No. 3 (2004).

19) Мареева Юлия ,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треугольник «Россия-Индия-Китай»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теория и историческая практика)," *Вестник МГИМО Университета*, Vol. 5, No. 26 (2012); Чанчао Го, "Рик (Россия - Индия - Китай)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достижения и проблемы,"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История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No. 2 (2019).

서 가질 수 있는 국제정치적 함의에 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러한 모습은 삼각관계가 가질 수 있는 넓은 차원의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하는 못한다는 한계로 이어진다. 따라서, '러시아·인도·중국의 삼각관계는 로맨틱 삼각관계이다'라는 주장을 넘어서는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양자관계뿐 아니라 삼자관계에 대한 분석도 진행하여, 이러한 관계가 갖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드러낼 것이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삼각형의 한 변을 이루는 양국관계의 특징을 단편적으로 이해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들은 주로 삼각형을 형성하고 있는 양국관계를 양(+)과 음(-)으로만 규정하는데, 그 결과 기존연구는 삼각형을 이루는 세 쌍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톰슨(William Thompson)의 지적처럼 양국관계가 대립(Rivalry) 구도에 놓여 있는 경우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었는지 깊은 탐구가 이뤄지지 않는다.[20] 예컨대, 유라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와 인도와 파키스탄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 모두 기존연구의 분류 방식을 따르면 '대립적(-) 관계'의 틀 속에 묶일 수 있으나, 전자는 '공간(Spatial)'과 '위치(Position)' 경쟁에서 모두 대립하는 특징을 갖는다면 후자는 주로 영토라는 공간적인 요인만을 두고 대립한다.

위치 경쟁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한 우(Yu-Shan Wu)에 따르면 국가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더 바람직한 위치(position)에 속하기 위해 행동한다.[21] 전술한 바와 같은 위치 경쟁은 대립 당사국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소지역(sub-region)에서 각자의 위치를 극대화하는 과정이자 그들이 자신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보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22] 이러한 이유로 위치 경쟁의 특성을 명확하게

---

20) William Thompson, "Principal rival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2 (1995).

21) Yu-Shan Wu, "Exploring Dual Triangles: The Development of Taipei-Washington-Beijing Relations," *Issues & Studies*, Vol. 32, No. 10 (1996).

22) 세력권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Edy Kaufman, *The Superpowers and Their Spheres of Influe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London: Croom Helm, 1976); Hedley Bull, *The Anarchical Society: 4th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2).

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처해있는 대외적 환경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23]

동북아시아라는 지역적 수준의 대외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한국·중국·일본의 삼각관계를 분석하면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 개념뿐 아니라 세 국가가 처해있는 구체적인 시공간과 그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비물질적 요인을 고려하는 한 연구처럼,[24] 본 연구 역시 러시아·인도·중국의 삼각관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탈냉전 이후 중앙 유라시아를 둘러싼 지역 질서와 그에 대한 세 국가의 인식을 살피면서 복합적인 특성을 띠는 이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셋째, 러시아·인도·중국의 삼각관계를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세 국가가 마주하고 있는 경쟁적 요인뿐 아니라 협력의 요인까지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인도·중국은 모두 지역 강국으로서 역내에서 각자의 영향권을 수호하기 위해 갈등과 경쟁도 벌이기도 하지만 협력을 통해 지역 질서를 관리하고자 하는 목표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25]

기존의 논의처럼 이분법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관계 당사국 사이에 상호작용에만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러한 삼각관계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함의를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할 수 있다. 전술한 이유로, 이와 같은 복합적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삼각관계를 이루는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갈등·경쟁 요인들을 관리해 나가는지에 관한 탐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러시아·인도·중국이 맺고 있는 독특한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정 국가가 대외정책을 펼치는 주요한 동인으로써 각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주의 가정을 수용한다.[26] 더불어, 구조적 상황이 국가의 대외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가정 역시 수용한다. 그러나 구조를 주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

23) William Thompson, 1995, pp. 217-218.
24) 신욱희, 『삼각관계의 국제정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25) Chen Dongxiao and Feng Shuai, 2016, p. 432.
26) Kenneth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llinois: Waveland Press, 2010).

이론과는 달리 본 연구는 구조가 항상 고정되어 있거나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구조가 행위자의 행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인정하나 그 구조를 단순히 주어진(given) 것으로만 파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구조를 단순히 주어진 변수로 취급하면 국제정치의 정태적 측면을 설명할 수는 있으나 동태적(dynamic) 측면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27]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내부 단위체인 국가와 거시적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 구조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28]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정치 구조를 일방적이며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고 양방적 특성을 띠고 가변적인 것으로 바라본다.

.

제 3 절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러시아, 인도, 중국 사이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 방식을 택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문헌은 각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발표되는 1차 문헌과 연구 논문, 저서, 언론 기사 등의 2차 문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본 연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볼 자료는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각 국가에서 나온 1차 문헌이다.[29] 이러한 1차 문헌은 각 국가가 목표로 하는 대외정책을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제시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차 문헌은 크게 외교·안보를 다루는 문헌과 군사를 다루는 문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

27) 민병원, 『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5), p. 53.
28) 민병원, 2005, pp. 63-64.
29) <표3-1>에서 소개하는 문건들 외에 다양한 1차 문건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표에서 제시된 문헌들은 기초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 전략(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과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이 외교·안보적 사안을 다루는 대표적인 문서라고 할 수 있다.[30] 그 외에 군사적인 사안을 다루는 문서로는 「러시아 연방 군사 독트린(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을 들 수 있다. 웹사이트로 검색을 통한 문건 수집은 주로 러시아 대통령궁과 외교부 사이트 등을 이용할 것이다.[31] 인도의 경우 외교·안보적 사안을 다루는 문서로 「국가 안보전략 드래프트(National Security Strategy draft)」와 「외무부 연간 보고서(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를 들 수 있다.[32] 군사적인 사안으로는 국방부에서 발표하는 「국방부 연간 보고서(Indian Ministry of Defense Annual Report)」와 「군사 독트린(India Army Doctrine)」을 활용한다. 웹사이트로 검색을 통한 문건 수집은 주로 인도 외교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중국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국 정부(中华人民共和国政府)와 중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에서 발표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외에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정상, 정부 부처 관계자들의 발언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보다 폭넓은 시각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러시아, 인도, 중국을 다루는 기존 연구과 뉴스와 설문 등 도달 가능한 범위에 존재하는 2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

30) 국가안보전략의 경우 2009년 새로운 문건이 나오기 전에는 국가안보 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으로 불렸으나 대체되었다. 국가안보 개념은 1997년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2000년 한 번의 수정을 거쳤다.

31) 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현재 러시아 정부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 본 연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러시아 정부 사이트를 중심으로 문건을 수집할 것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2차 자료도 활용할 것이다.

32) 국가 안보전략이 드래프트인 이유는 인도가 아직 공식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1-1> 러시아, 인도, 중국 정부 발표 주요 문헌

국가	문헌		
	외교·안보	군사	웹사이트
러시아	•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 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연방 국가안보 전략(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연방 대외정책 개념(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연방 군사 독트린(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러시아 대통령궁(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 러시아 외교부(МИД России)
인도	• 국가 안보전략 드래프트(National Security Strategy draft) • 인도 외무부 연간 보고서(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 인도 국방부 연간 보고서(Indian Ministry of Defense Annual Report) • 인도 군사 독트린(India Army Doctrine)	• 인도 외교부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중국	• 중국 정부(中华人民共和国政府) 발표 자료 • 중국 외교부(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발표 자료		

2) 사례 및 시기 설정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으로 구성되어있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 관계를 탐구한다. 본 연구가 러시아·인도·중국을 탐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인도·중국 모두 단일 국가로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구조 질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별국가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어떠한 형태의 결과 역시 구조적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본 연구는 관계 당사국 상호작용의 영향이 지역이나 지구 질서 등 구조적 수준에 도달할 때 이를 '전략적 특성'을 획득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성은 일반적인 관계와 전략적인 관계를 구분 짓는다. 전술한 바와 같은 정의를 러시아·인도·중국에 적용한다면, 세 국가는 모두 전략적 행위자의 범주에 속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세 국가 모두 지구 및 지역적 수준에서 경제·외교·군사적 힘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추구 범위 역시 각 국가의 국경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확장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인도·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자의 대외정책은 최소한 지역적 수준의 지역 질서 변화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그들의 경제·군사적 지표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경제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을, 군사 지표를 살펴보기 위해 '군사력 지표(Global Fire Power)'을 살펴봤다. 더불어, 본 절은 국경을 넘어선 범위에서 전개되는 러시아·인도·중국의 대외정책을 검토하여 이들이 전략적 행위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확장적 대외정책'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러시아부터 살펴보자면, 러시아는 2021년 기준 경제적으로는 '국내총생산(GDP)'이 11위에 위치하며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에 자리 잡고 있다.[33] 러시아는 2000년대 1990년대 상실한 자신의 국력을 빠르게 회복하며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러

33) 러시아, 인도, 중국의 GDP는 World Bank의 자료를 참고하였음; World Bank,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most_recent_value_desc=true (검색일: 2022년 7월 21일); 군사력의 경우 'GlobalFirepower'에 공개되어 있는 지표를 활용하였음: Global Fire Power, "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검색일: 2022년 7월 21일).

시아는 중앙 유라시아 중 특히 구소련 지역의 응집력을 자국 주도로 높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통해 군사적으로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국의 경제·군사·안보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외부 세력 유입을 견제하고자 한다.

이어서 인도는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에서 6번째 경제 대국이며 군사적으로도 미국·러시아·중국에 이어서 네 번째에 위치한다. 인도는 1998년 핵실험을 통해 남아시아라는 지역을 넘어서 지구적 수준에서도 주요한 행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냈다. 이후 인도는 글로벌 주요 이슈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선도국가(leading power)로 변모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 및 글로벌 다자주의 협의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러 국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자국의 가치와 이익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34] 인도는 자국 중심의 지역 통합을 위해 남아시아를 대상으로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틀을 활용하는 한편, 동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을 통해,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방정책(Look North Policy)'을 통해 자국의 영향권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35]

끝으로 중국 역시 GDP 기준으로 중국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에 위치할 정도로 경제적 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군사력 역시 미국·러시아에 이어서 세 번째에 자리한다. 중국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길렀던 시기를 지나 2000년대에 들어 평화롭게 우뚝 서고자 하였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 할 일을 하면서 다른 대국들과는 신형관계를 맺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 양자적 차원에서 중국은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도 불사하고 있으며, '일대일로(BRI)',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통해 서진(西進)의 속도를 계속하여 높여가고 있는 국가이다.

---

34) 조원득, 『미중 경쟁 구도 하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신남방정책』,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21), p. 11.

35) Rajesh Basrur, "Modi's foreign policy fundamentals: a trajectory unchanged,"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 1 (2017), p. 7; Thongkholal Haokip, "Recent trends in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Indian experienc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5, No. 4 (2012), p. 377

<표1-2>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성 검토

지표 / 국가	경제력/군사력	확장적 대외정책
러시아	11위/2위	EAEU/CSTO
인도	6위/4위	SAARC/ Look East(North)
중국	2위/3위	BRI/SCO

이처럼 러시아·인도·중국은 중앙 유라시아에서 전략적 행위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전술한 이유로 세 국가는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이들의 관계가 지역이나 지구 질서에 영향을 주는 '전략적 특성'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분석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특정 시기에 집중하기보다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처음으로 제안된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분석 시기로 설정하였다.

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인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에 대한 소개가 이뤄진다. 이후 Ⅲ장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전략적 협력의 발전단계를 추적한다. 그 과정에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중앙 유라시아를 둘러싼 지역 질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러시아·인도·중국의 개별국가적 차원의 인식과 양자적 차원의 조율 노력을 드러낼 것이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단계별 모습도 살펴볼 것이다. Ⅳ장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프로젝트의 실천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Ⅴ장에서 본 연구의 논의를 요약 및 정리한 후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Ⅱ.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이론적 검토

본 장은 러시아·인도·중국이 맺고 있는 특수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인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우선 이어지는 절에서 전략적 관계를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살펴본 뒤,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본 장은 그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란 무엇인지,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추동되는지, 그리고 본 관계의 작동기제는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전략적 관계 정의

본 절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것에 앞서 그것의 근간을 이루는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hip)'의 정의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전략적'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략적 관계' 중 '전략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 방침이나 계획과 관련된 것'을 뜻한다.[36]

이와 같은 '전략적'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국제정치에 여러 분석 단위체 중 하나인 국가에 초점을 맞추어 적용한다면 특정한 국가가 행하는 '전략적 행위'는 '특정 국가가 자신의 국제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행동 방침이나 계획'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해본다면, '전략적인 관계'란 '특정 국가가 자국의 국제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36)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전략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d539b1ae79c44d28b3e12e53feb97e6 (검색일: 2022년 3월 10일).

본 연구는 이러한 '전략적 관계'가 관계 당사국 사이의 상호작용이 상대국가의 행동뿐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37] 그 이유는 전략적 관계를 구성하는 국가들은 지구적 수준이나 지역적 수준에서 자신의 고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전략적 행위자로서 지역이나 지구적 수준에서 고유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행위자는 다른 용어로 '강대국(Great Power)'으로도 정의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강대국은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힘과 영향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추구하는 이익의 범위가 국경을 넘어 확장되는 국가를 의미한다.[38]

상술한 분류에 속하는 국가 사이에 상호작용이 발생한다면 당사국들은 서로에 대해서 반드시 고려할 수밖에 없다.[39] 왜냐하면, 강대국들이 추구하는 이익의 범위는 국경을 넘기 때문이다. 이익의 범위가 겹치는 상황에서 강대국 간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조율되면 그들을 둘러싼 질서가 유지될 수 있으나 만약 조율에 실패한다면 강대국 사이에는 또 다른 상호작용의 동학이 형성될 것이고 그 결과 질서는 변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정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강대국과 이익의 범위가 겹치거나 혹은 세력권을 침범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략적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나타나는 어떠한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략적'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관계 당사국 상호작용의 영향이 지역이나 지구 질서 등 구조적 수준에 도달할 때 그러한 관계가 '전략적 특성(Strategic Attribute)'을 획득하였다고 한다.[40] 이를 복잡계 이론(complex theory)의 용어를 빌려서 설명하자면, 전략적 관계의 창발(emergence)은 일반적인 관계가 '전략적 특성'을 획득했을 때 발생한다. 창발이 통상 결과(result)와 구분되는 것으로 새로운 특성을 획득하여야 발생하는 것임을 고려해 본다면, 전략적 특성이 부여된

37) 신범식, 2010b, pp. 138-144.
38) Oxford Reference, "great power,"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905559 (검색일: 2022년 6월 20일).
39) 신범식, 2010b, p. 140.
40) Shin, 2015, p. 111.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와 비교했을 때 질적으로 새로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41]

이러한 전략적 관계는 지구적 수준의 전략적 관계와 지역적 수준의 전략적 관계로 나누어진다. 두 층위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지구 수준이 지역 수준보다 상위의 층위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구적 층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관계라면 지역적 층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특정 국가 사이의 전략적 관계가 지역적 층위에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위인 지구적 층위 질서에는 그 영향이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관계를 예시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2년 현재 나타나는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양자가 서로에 대한 수위 높은 비난과 제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지구와 지역 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관계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중국 관계 역시 전략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은 각자의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중국 관계의 부침은 좁게는 지역 질서에 넓게는 지구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 2 절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1)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정의와 특징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전략적인 관계에 동반자적 속성이 더해진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우선, 동반자(Partner)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짝이 되어 함께하는 자'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 행동에 동감하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주는 자'로 정의된다.[42]

---

41) Reuben Ablowitz, "The theory of emergence," *Philosophy of science*, Vol. 6, No. 1 (1939), p. 3.

이를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해보자면 동반자관계란 일반적인 관계에 협력의 필요성이 더해진 관계로서 '관계 당사국이 어떠한 국제정치적 행동을 할 때 그들 간 짝이 되어 함께 하거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에 어느 정도 공감과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로 정의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술한 바와 같은 동반자관계에 '전략적' 특성이 부여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기존연구에 따르면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관계 당사국들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그들의 국제적 역할 실현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관계'이거나[43], '국가가 국제 시스템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정의된다.[44]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국제정치에서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관계 당사국들이 국제정치적 환경을 각자의 대외적 목표 달성에 유리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목적 지향적 관계(goal-oriented relationship)'이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자국/공동의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이익기반 관계(interest-based relationship)'이다.[45]

이러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위협 주도(threat driven)' 방식으로 인하여 형성되기보다 '목표 주도(goal driven)'를 통해 형성된다. 둘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적이나 위협을 상정하고 대응하는 차원에서 형성되는 동맹(alliance) 관계보다 느슨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며 특정한 영역에서의 공동 이익 달성을 목표로 한다. 셋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동맹과 비교했을 때, 관계 당사국

---

42)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동반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5f8254731a3469082b0f72a7ff563e3 (검색일: 2022년 4월 26일).

43) Anna Michalski,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Order: The Role of Strategic Partnerships,"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2019), p. 5.

44) Sean Kay, "What Is a Strategic Partnership?," *Problems of Post Communism*, Vol 47, No. 3 (2000), p. 16.

45) 이무성, "유럽연합(EU)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연구: 양면성과 개념적 정의,"『유럽연구』37권 2호 (2019), p. 65.

에 엄격한 행동 방침이나 규율이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특성은 경직성보다는 유연함(flexibility)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방국 사이뿐 아니라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 사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46] 넷째,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추동에는 관계 당사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다.[47] 전술한 바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특성으로 인하여, 본 관계는 국제 사회에서 냉전 종식 이후 과거의 동맹 관계를 대체하는 21세기형 관계로 자리 잡았다.[48]

2)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정의

이전 절에서 살펴본 전략적 동반자관계는 두 국가 사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특성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국제정치에서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국가들 사이의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망(network)이 존재한다. 이 중, 삼각관계는 양자를 넘어 N개의 국가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망 중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그것을 활용하여 자국의 대외적 이익을 추구한다.[49]

그러나 지구에 존재하는 세 국가가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모두 전략적 삼각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관계가 전략적 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삼각관계가 전략적 삼각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특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적 삼각관계는 관계 당사국 간 상호작용이 지역이나 지구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준다.[50]

---

46) Thomas Wilkins, “Alignment’, not ‘alliance’-the shifting paradigm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oward a conceptual taxonomy of align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No. 1 (2012), p. 68.

47) 이와 같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한 관계 당사국이 상대국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이며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인식할 경우 본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라고 불릴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동반자관계’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모두 관계 당사국이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공통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관계라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후자는 전자에 비해 협력적 기조가 더욱 반영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48) 현승수 외, 『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통일연구원, 2020), p. 41.

49) Seongji woo, 2003, p. 34.

본 연구는 전략적 삼각관계에 협력적 기조가 더해진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복합적 특성을 띠는 세 쌍의 양자 관계로 이루어진 삼각관계'로 정의하는데, 여기에서 '복합적 특성'이란 관계 당사국 사이에 협력·갈등·경쟁의 요인이 모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고정적이기보다는 관계적·과정적이며, 주어진 것이 아닌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렇다면 협력(cooperation)'은 무엇일까? 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조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협력과 조화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인은 '이해 상충의 여부이다. 이해 상충의 부재로 인해 관계 당사국 간 충돌 가능성이 부재한 조화의 경우에는 행위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바꿀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에, 협력의 경우 이해 상충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자 간의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협력의 방식과 내용은 사전에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자들은 조율(coordination)의 과정을 거치며 개인 혹은 조직의 행동을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51] 따라서, 협력이 발생하면 행위자들은 상대방의 행동 변화에 따라 자신의 행동도 변화시키게 된다.[52]

그렇다면 전략적 삼각관계는 어떻게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로 발전하는가? 무엇이 전략적 삼각관계에 협력적 기조를 더해 주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전략적 삼각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잠깐 서술한 바와 같이 관계 당사국들의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관계 당사국들의 국제정치환경에 대한 인식이 삼자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기조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53]

---

50) 다른 학자는 질서 변화를 세력균형의 변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Harsh Pant, "Feasibility of the Russia-China-India "Strategic Triangle. Assess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ternational Studies*, Vol. 43, No. 1 (2006), p. 5.

51) Robert Keohane,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 51.

52) Robert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1988), p. 380.

53) 하용출·신범식, "탈냉전기 러시아 국제정치인식의 이론구성적 이해,"『세계지역연구논총』28권 1호 (2010), p. 186.

한편, 이와 같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는 세 국가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가 필요하다. 특정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A, B, C라는 국가로 구성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를 중추적인 국가라고 했을 때, A-B, A-C라는 삼각형의 두 변이 완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B와 C의 관계가 형성되어 A-B, A-C, B-C라는 세 변으로 구성되는 삼각형이 완성되는 것인데, '삼자 간 완결(Triadic Closure)' 이론에 따르면 A-B, A-C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B-C의 관계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삼자 간 완결 이론에 따르면 B-C 관계의 특성은 A가 B, C랑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54] 이러한 논의를 세 쌍의 복합적인 관계로 구성되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 적용해본다면, A-B, A-C 관계가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는 만큼, B-C의 관계도 그러한 특성을 가지는 관계가 될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A는 B와 C 모두와 복합적이지만 갈등·경쟁보다는 협력적인 특징을 가지는 관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중요한 점은 B-C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경쟁과 갈등 요인이 적절하게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A-B, A-C 관계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B-C 관계가 적절하게 조율되어 '삼자 간 완결'이 되지 않으면 삼각관계의 완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완성되는 것에 있어서 A-B, A-C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B-C 관계의 적절한 관리와 조율도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완성되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시너지 효과는 세 쌍의 양자관계가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욱 클 수 있다.[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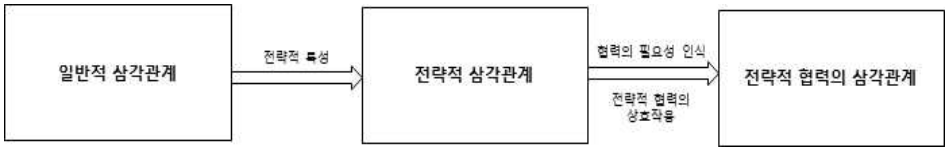
---

54) 관련된 이론으로는 다음을 참고; Kurt H. Wolff(eds.),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Illinois: The Free Press, 1950), pp. 135-136; Mark. S. Granovetter,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1973), pp. 1360-1380.

55) Skyler J. Cranmer et al, "Toward a Network Theory of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8 (2012), p. 297; 전술한 논문에서는 삼자 간 완결의 이론적 논의를 동맹 형성과 관련된 동학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맹 형성을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국제정치에서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특정한 관계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 '네트워크'를 분석하고 있는 Cranmer의 논의가 일정 부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인식된 협력의 필요성이 양자·삼자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졌을 때 일반적인 전략적 삼각관계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로 전환된다는 점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본 절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관계 당사국 모두와 경쟁·갈등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중추적 행위자의 존재와 삼각형을 구성하는 취약한 변(side)에 대한 조율을 바탕으로 '삼자 간 완결'이 되는 것이 중요함도 강조하였다.

<그림 2-1> 삼각관계의 발전과정



3)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작동기제

본 연구는 관계 당사국 간 전략적 협력의 상호작용이 전략적 협력이 삼각관계의 형성 및 작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며, 이를 크게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프로젝트 실천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통을 통합 입장의 조율 과정에서 관계 당사국은 협력·갈등·경쟁 요인에 대한 조율을 진행해야 한다. 특히 본 과정에서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이루는 세 쌍의 양자관계 관리가 필수적인데, 여기에서 관리는 특정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그러한 갈등을 해소하거나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 아래에서 취하는 조치를 의미한다.[56]

전략적 행위자 사이의 특정한 갈등은 그들이 추구하는 대외적 이익의 범위가 중첩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지정학적 경쟁(geopolitical competition)은 주로 군사·안보적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국가 사이에 벌어지는 '강압적 교섭의 상호작용(coercive bargain

56) 네이버 지식백과, "갈등관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409&cid=42152&categoryId=42152 (검색일: 2022년 6월 22일).

ing interaction)'이라고 할 수 있다.[57] 소통을 통한 조율의 과정은 이와 같은 강압적 교섭의 상호작용의 약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양자적 수준의 조율 및 관리를 바탕으로 삼자적 차원에서 협력을 위한 소통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례화된 소통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도는 '공식적·비공식적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자 사이의 행동을 패턴화나 범주화시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연결된 규칙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렇게 형성된 제도는 행위자들의 역할을 규정하고 활동을 제약하며 미래에 발생 가능한 이익에 대해 행위자들 사이에 기대치가 형성되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58]

한편, 본 단계에서 관계 당사국들은 특정한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관계 당사국들은 특정한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과정은 관계 당사국들이 각자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 혹은 '전략적 경계(strategic boundary)'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상대국과의 이해 속에서 지전략적 균형과 안정'(geo-strategical balance and stability)을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59]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전략적 행위자들은 그들만의 세력권(Sphere of Influence)'을 구축하여, 그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소통은 이러한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전략적 행위자와의 세력권 충돌과 같은 상황을 방지시킬 수 있다.[60]

이어지는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단계에서는 협력을 위한 목표

---

57) Jonathan N Markowitz and Christopher J Fariss, "Power, Proximity, and Democracy: Geopolitical Competition in the International Syste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5, No. 1 (2018), p. 79.

58) Keohane, 1988, p. 384.

59) 신범식, "러시아-중국 안보 군사협력 관계의 변화와 전망,"『중소연구』30권 4호 (2007), p. 65; 추가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 김재관,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아세아연구』59권 2호 (2016).

60) Edy Kaufman, 1976, p. 11.

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비전'은 구체적으로 특정 행위자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를 뜻하는 단어이다.[61] 이러한 비전에 전략적 특성이 획득된 '전략적 비전'이란 '지구나 지역 질서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국가의 국제정치적 목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익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특정한 국가가 인식하는 필요(needs)와 갈망(desire)'으로 정의한다.[62] 여기에서 갈망이란 상술한 바와 같은 비전의 정의와 일맥상통하며 필요는 구체적으로 '안보적 필요(security needs)'와 '경제적 필요(economic needs)'로 나누어진다. 전략적 비전이 그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한 지향이라고 한다면, 이익은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을 담는다.

끝으로 프로젝트 실천의 단계에서는 공유된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관계 당사국들이 아무리 소통을 통합 입장의 조율과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더라도, 그것을 특정한 프로젝트로 실천하지 못하면 이 관계는 무의미한 말 잔치에 끝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63] 예컨대, 이러한 프로젝트로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는 확장된 형태의 N자 관계의 형성이라든지 세 국가가 동시에 투자하는 인프라 건설 사업 등이 있을 수 있다.

---

61) 두산백과, "비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684203&cid=40942&categoryId=31910 (검색일: 2022년 5월 13일).

62) Donald E. Nuechterlein,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and Decision-Making,"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 No. 3 (1976), pp. 247-248.

63) 신범식, 2010b, p. 156.

<표2-1>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기제

단계	수준	질문
소통을 통한 입장 조율	양자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당사국들은 세 쌍의 양자관계에 놓여 있는 갈등·경쟁·협력 요인을 조율해 나가고 있는가?
	삼자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당사국들은 삼자적 차원에서 그들 간 갈등 및 경쟁 요인에 대한 조율을 해나가고 있는가?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당사국 사이들은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였는가?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당사국들은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논의하고 있는가?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삼자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당사국들은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가?
프로젝트 실천		•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당사국들은 지구/지역적 질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가?

한편, 이와 같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소다자주의 역시 소수의 국가가 그들이 특정한 이슈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심을 공유하기 위해 결합 된 형태의 관계망이기 때문이다.[64] 이러한 이유로 소다자주의는 다자의 틀에서 다루기에는 복잡한 국제정치적 사안들을 소수의 국가가 협의의 과정을 통해 대응하는 외교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소다자주의에는 통상 UN, EU 등과 같은 다자주의 그룹보다는 적은 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특정한 국제정치 이슈에 대해 관계 당사국 간의 유연한 대응을 목표로 한다.[65]

우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생겨나고 지

64) 박재적,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삼자 안보협력과 삼각관계,” 정성철(편), 『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체정치』(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2022), p. 228.
65) Erica Moret, “Effective minilateralism for the EU: What, when and how,”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 2016, p. 2.

속하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관계 당사국 간 전략적 상호작용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① 전략적 특성을 획득한 세 국가 간 관계에 ② 협력적 기조가 더해지고 ③ 소통을 통한 전략적 조율을 해나가며 ④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고 ⑤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며 작동하였다.

이러한 소다자주의의 특성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다음과 같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소다자주의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굳이 국가 간 관계가 전략적 특성을 획득할 필요가 없다. 둘째, 소다자주의의 형성에는 대외적 환경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일부 특수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이슈가 더 큰 영향을 준다. 셋째, 소다자주의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비교했을 때 대내적 차원에서 관계 당사국 간 나타나는 전략적 상호작용이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넷째, 절대적인 행위자의 수에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세 국가 간 관계라면 소다자주의는 더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소다자주의와 일정 부분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같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제 3 절 소결

이번 장은 러시아·인도·중국이 맺고 있는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틀인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제시하였다. 본 장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 그것을 이루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구조적 수준의 질서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관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전략적 행위자로 이뤄진 삼각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는 개별국가의 인식뿐 아니라 양자적 수준의 조

율이 필요하다. 특히 양자적 수준에서 이뤄지는 경쟁·갈등 요인에 대한 조율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완성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후 본 연구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작동하는 기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첫 번째 단계인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단계에서는 양자적·삼자적 수준에서 협력·갈등·경쟁 요인에 대한 소통과 조율이 이뤄진다. 그리고 삼자적 수준에서 전략적 행위자 간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제도가 구축되고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을 논의한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인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에서는 세 국가는 지구 및 지역 수준에서 형성하고 있는 공통의 비전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삼자 간 협력을 통해 도출해낼 수 있는 이익에 대해 공유를 한다. 마지막 단계인 프로젝트의 실천 단계에서는 지구·지역 질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이를 채워갈 수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간다.

III.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동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발전과정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두 단계를 거치며 2017년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 그 중, 첫 번째인 모색 단계는 1997년 프리마코프의 초기 구상부터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 외무장관 회의 전(前)까지를 이르는 시기이다. 본 시기에 러시아는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인식 속에서 인도·중국과 삼각 협력을 위한 구상을 제시했지만 그러한 구상이 구체적인 결과로 실현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편, 2005년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 이후 세 국가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조율 및 형성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이 기존처럼 다른 국제회의의 틀을 통하는 만남이 아닌 최초로 독립된 형태의 만남을 가졌을 뿐 아니라,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급 수준의 정례화된 만남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66] 이러한 이유로 본 회의는 1990년대 말 구상에 그쳤던 프리마코프의 삼국 협력 아이디어가 최초로 실체화된 사례라는 점에서 국제정치적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받는다.[67]

본 단계에서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인도-중국 관계가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세 국가는 지구·지역 질서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게 되었다. 더불어 본 단계에서 세 국가는 정례화된 소통을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며 구체적인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바탕을 다져나가기도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에는 인도-중국 관계에 놓여 있는 경쟁 및 갈등 요인을 조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모색되었다.

---

66) 백준기 외, 2012, p. 19.
67) Harsh Pant, 2004, p. 313.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7년 인도의 SCO 가입 이후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발전 단계에 진입한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지구와 지역뿐 아니라 여러 다자기구에서 중추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국제정치적인 영향을 지속하여 주고 있다.

본 장은 이와 같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지난 15년 동안 거쳐온 경로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우선 러시아·인도·중국을 둘러싼 지난 15년 동안의 지역 질서와 그에 대한 개별국가의 인식 및 양자적 수준의 상호작용을 살펴볼 것이다.[68] 이후 그 속에서 나타난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단계별 모습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제 1 절 1997 – 2022년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의 변동

1) 1기(1997 – 2004년): 미국의 지역 질서 재편 노력

소련이 붕괴한 이후 중앙 유라시아에서 나타난 힘의 공백을 대미국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메우고자 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무부장관 탤보트(Strobe Talbott)가 발표한 여러 연설이나 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이나 구소련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들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반러시아적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하여 중앙 유라시아 내 지정학적 다원주의의 형성을 이끌고자 하였다.[69]

---

68) 양자관계 분석 과정에 있어서 본 연구는 전(全) 기간에 걸친 양국 간 상호작용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위주(event-oriented)와 이슈 영역 위주(issue area-oriented)를 살피는 접근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 정재호, 『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p. 20.

69)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을 참고; 신범식, 2008, p. 179; Stephan Kieninger, “The Strobe Talbott Papers at the State Department’s Virtual Reading Room,” (2022.02.02.),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strobe-talbott-papers-state-departments-virtual-reading-room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한편, 2000년대 이전까지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간접적인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던 미국의 영향력 확장 노력은 2001년 이후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유라시아의 '심장지대(Heartland)'에 진출한 이후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통해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2001년 9·11테러 발생 직후 중앙 유라시아의 국가들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70]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테러 발생 6일 뒤인 9월 17일 전시 내각을 구성하고 반테러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 중앙 유라시아의 지역 강국이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적극적으로 화답하였다.

당시 중국 장쩌민(江泽民) 국가 주석은 테러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미국이 수행할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였으며 러시아 역시 테러 직후 가장 먼저 미국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며 대미협력 의사를 표출하였다.[71] 이러한 양국의 협력 의사 표출에는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테러/분리주의 위협 진압을 위한 과정이 인권탄압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반테러 전쟁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강변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러시아는 1990년대에 걸친 국력의 침식으로 인하여 미국 견제는 물론이고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과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하여 지역적으로는 위협 요인을 제거하고 국내적으로는 경제발전과 국제 사회로의 편입을 얻어내고자 한 것이다.[72] 또한, 중국 역시 미국의 테러전에 대한 협력을 통해 신장·위

---

70) 1990년대에 걸친 중앙 유라시아의 지역 질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시기 동안 중앙 유라시아는 특정한 국가의 영향력에 놓이지 못함에 따라 대외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의 지역 패권 쟁탈을 놓고 벌이는 지정학적 각축과 대내적으로는 신생 국가들 사이의 국가발전 노선인 '지정학적 다원주의'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중앙 유라시아 진출, 러시아·인도·중국의 국력 회복이 나타났던 2000년대 이후 다시 한 번 변화하게 된다.

71) 김국신·이헌경,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통일정세분석』10호 (2001), pp. 4-5.

72) 신범식,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14권 4호 (2005), p. 129.

구르, 티베트 등의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를 차단하는 행동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와 함께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중앙 유라시아에 들어오게 되자 지역 국가들 역시 대미(對美) 협조의 태도를 보였다.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새로운 미군 기지가 건설되는 것이 승인되었으며 1990년대 말 핵 개발, 실험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파키스탄 역시 적극적인 대미 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73]

그렇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지역 안보의 보장을 위해 전적으로 미국이 펼치고 있었던 테러와의 전쟁에 편승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2000년대 초반 시기 동안 러시아와 중국은 각자의 주도로 중앙 유라시아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주의 기구를 만들었는데, 전자는 2002년 구소련 국가들을 중심으로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를 후자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2001년 출범시켰다.

한편, 2003년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이뤄졌었던 지역 정치 구도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되어 있던 미국의 전략 수행 범위가 점차 이라크 등으로 확장되고 2000년대 중반부터 서방의 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유라시아 전역에 걸쳐 수차례의 '반체제 움직임(anti-regime movement)'이 발생하였다. '색깔혁명(color revolution)'으로도 불리는 반체제 움직임은 2003년 조지아를 시작으로 2004년 우크라이나, 그리고 2005년에는 키르기스스탄에까지 확대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2005년 5월 반정권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나 정부의 무력 진압으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74]

---

73) 프레시안, "美 군사력, 中央亞 본격 진출," (2002.01.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1293#0DKU (검색일: 2022년 2월 11일).

74) 이러한 것에 대해 Way 교수는 서방 국가와의 연결성이 색깔 혁명 성공 여부를 결정지었던 중요한 변수로 제시한다; Lucan Way, "The Real Causes of the Color Revolutions," *Jo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2008); 더불어 색깔혁명의 과정에서 서방의 간접적인 지원이 있음도 확인되었다. 관련 논문은 다음을 참고; 황성우,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동서 패권주의 가능성 연구,"『국제지역연구』14권 2호 (2010), pp. 477-498.

2) 2기(2005 - 2009년): 미국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새로운 질서의 모색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 중앙 유라시아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었던 반체제 움직임은 역내 국가들에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일부 중앙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은 외부 세력에 대한 균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75] 예컨대, 중앙 유라시아의 국가들은 카자흐스탄의 수도인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열린 SCO 정상회의 후 공동선언을 통해 "주권국가에 대한 외부의 개입을 반대"함을 밝히며 그들이 외부 세력에 대해 공동으로 형성하고 있는 경계심을 표출하였다.[76] 이후 SCO 회원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의 '카리쉬-하나바드(Karshi Khanabad)' 미국 공군기지가 같은 해 11월 폐쇄되었다.[77] 이러한 SCO의 행보는 그동안의 모습을 고려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이전까지 SCO는 반테러, 역내 교역, 정보 공유, 공동 안보 등의 문제를 주로 논의해왔는데, 미국의 적극적인 영향력 확대 노력 이후 미군 철수와 같은 선명한 정치적 주장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SCO의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서 진행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이미 마무리되었기에 미군을 비롯한 반테러군은 철군 시한을 정하고 이에 따라 중앙아시아에서 철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본 시기 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적 협력은 더욱 발전하였는데, 이는 '미국 vs 러-중 연대'라는 두 진영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세력균형을 추구하는 경쟁의 강화로 이어졌다.[78] 이에 더하여 인도와 같은 국가도 과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외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천명함에 따라,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대(對)미 대항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주요 국가들 사이에 전략적 협력이 이뤄질 큰 계기가 형성되었다.

---

75) 신범식,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슬라브학보』30권 2호 (2015), p. 210.

76) 인도와 파키스탄 등도 2005년 7월부터 SCO의 준회원 국가로 참여하였음; SCO, "Declaration by the Head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05.07.05.), http://eng.sectsco.org/documents/ (검색일: 2022년 2월 12일).

77) 외교부,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내 위상 및 주요국 관계," https://overseas.mofa.go.kr/uz-ko/brd/m_8559/down.do?brd_id=2925&seq=665795&data_tp=A&file_seq=1 (검색일: 2022년 2월 13일).

78) 신범식, 2008, p. 185.

한편, 본 시기 동안 중앙 유라시아의 여러 행위자 가운데, 회복된 국력을 바탕으로 과거보다 적극적인 태도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의지를 드러낸 러시아는 지역 질서 변화에 큰 변수로 작용하였다. 러시아는 소련의 붕괴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까지 자국의 힘이 쇠퇴한 상황속에서 미국이 중앙 유라시아에서 시도한 영향력 확장에 대해 위기의식과 불만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러시아의 불만은 2007년 뮌헨 안보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에 의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경시하며 정치·경제·인도주의 영역에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79] 그러나 푸틴 대통령 등장 이후 러시아의 국력이 신장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본 시기부터 미국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자신의 독자적 입지를 다지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는 중앙 유라시아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상황에서 당시 중앙 유라시아의 잠재적 강대국이었던 중국은 확장 의지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으며, 러시아 역시 더욱 강경한 외교정책을 바탕으로 자신의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도 등도 2009년 외교부 발간된 연간 보고서에서 자국의 외교정책은 '계몽화된 자기이익(enlightened self-interest)'을 수호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지역 질서가 형성될 것이 암시되었다.[80]

3) 3기(2010 - 2014년):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재편기

2010년 이후 중앙 유라시아 지역은 다시 한번 강대국 사이의 활발

---

7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Выступление и дискуссия на Мюнхе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2007.02.10.),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034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80)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8-2009," (2009.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70_Annual-Report-2008-2009.pdf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한 지정학적 경쟁이 발생하는 장(場)이 되었다. 2000년 이후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에 힘입어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한 러시아, 영향력 침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미국, 발전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력 반경을 넓혀 나가며 국제무대에 우뚝 서고자 하는 중국, 국익 수호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던 인도의 적극적인 대외정책 등 중앙 유라시아의 주요 지역 국가들이 만들어내었던 국제정치적 동학은 지역 질서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상술한 여러 요인 가운데 중국의 부상은 본 시기 중앙 유라시아를 둘러싼 지역 변화에 영향을 준 주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시기 동안 중국은 자국의 확대된 경제력을 근간으로 서진하며 중앙 유라시아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며 향후 역내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국이자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가가 되고자 하였다.[81] 중국은 중앙 유라시아로 세력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통해 자국의 서부 국경지대의 안정을 도모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발전시키며, 미국과 인도의 영향력을 견제하려고 하였다.[82]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13년 카자흐스탄의 수도 누르술탄(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 대학에 방문한 고대의 실크로드를 따라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현: BRI)' 정책을 발표하였다.[83] 이러한 정책은 중국이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다자주의적 정책수단을 강화하여 중앙 유라시아 지역에서 확고한 영향력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서진 정책을 통해 서부 국경지대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분리주의 및 테러리즘 움직임을 경계하며 자국이 마주한 안보적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중국의 부상을 어느 정도 견제하며 중앙 유라시아

---

81) 신범식, 2015, p. 206.

82) Michael Clarke, "China's strategy in "greater Central Asia": is Afghanistan the missing link?,"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40, No. 1 (2013), p. 3.

83)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习近平在哈萨克斯坦纳扎尔巴耶夫大学发表重要演讲," (2013.09.07.), http://www.gov.cn/ldhd/2013-09/07/content_2483425.htm (검색일: 2022년 3월 5일).

지역 질서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국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을 활용하였다. 러시아는 2012년에 CSTO가 역외국가가 CSTO 내에 군대를 주둔하는 것에 대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낡은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이 두 국가의 군대에 각각 소총, 장갑차, 헬기를 비롯하여 방공무기 현대화 군사 장비 수리 비용 등을 지원하였다.[84] 전술한 정책의 일환에서 러시아는 자국 무기를 CSTO로 수출하고자 하였다. 2012년 러시아는 132억의 달러의 무기수출을 하였는데 그 중 CSTO로의 무기수출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한 80억 달러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85] 본 시기 동안 러시아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리셋 외교(Reset Diplomacy)'와 함께 러시아-미국 관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으나 궁극적으로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고 러시아 내에서 인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양자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은 이뤄지지 못하였다.

중앙 유라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인 인도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을 활용하여 자신이 본 지역 내에서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시기 동안 인도와 미국의 관계는 그 이전보다 크게 발전하였는데 2010년에는 미국의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1969년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를 방문하여 인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2012년 인도를 방문한 미국 국방부 장관 패네타(Leon Panetta)는 기술이전을 포함하여 인도에 재래식 전력을 지원할 강한 의지도 보였다.[86] 한편, 본 시기 동안 인도는 중앙아시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인도의 북방(北方)정책은 개별국가적 차원 및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되었는데, 우선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인도는 201

84) 연합뉴스, "러', 중앙아 지역 입지 강화 노력 가속화," (2012.11.06.), https://www.yna.co.kr/view/AKR20121106153400080(검색일: 2022년 3월 6일).
85) 연합뉴스, ""러시아, 지난해 132억 달러 무기수출"," (2012.02.28.), https://www.yna.co.kr/view/AKR20120228119100080(검색일: 2022년 3월 6일).
86) 김태현, "중국의 부상과 인도," 『전략연구』 통권 59호 (2013), p. 157.

2년 6월 12일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제1차 '인도-중앙아시아 대화(India-Central Asia Dialogue)' 개최하며 인도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에서 교류의 저변을 확장하여 인도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천명하였다.[87] 이 대화에서 인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안보, 경제, 에너지, 회랑 등 다양한 부문의 협력을 위한 '중앙아시아 연결정책(Connect Central Asia Policy)'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며 양자 간 협력적이고 상호 유익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88] 이러한 인도의 중앙아시아 진출 시도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미국에 의해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았는데, 2011년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었던 힐러리(Clinton Hillary)는 제2차 미국-인도 전략대화에서 '신(新)실크로드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는 2001년 이후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하여 확장해온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연계 및 통합하려는 미국의 지역 통합 구상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인도 역시 이러한 미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89]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함에 따라 본격적인 지정학의 시대가 귀환하였다. 2014년 이후 비(非)서방 진영의 일부 국가들로부터 서방 진영의 규칙 기반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질적이고 대안적인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소리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2010년 이후 2014년에 이르는 시기는 중앙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쇠퇴,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인도의 대중견제 및 대러/대미협력 확대, 중앙아시아로의 적극적 진출 의사 표출, 지정학의 귀환에 따른 새로운 지구/지역 질서의 모색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

87) 이지은, 2012, p. 192.

8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Keynote address by MOS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12.06.12.), http://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19791. (검색일: 2022년 3월 4일.)

89) 서정규, "'일대일로'의 지정학: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 『성균차이나브리프』 3권 3호 (2015), pp. 49-50.

4) 4기(2015 - 2022년): 주요 지역 국가들의 부상과 다(극)지역질서의 추동

2010년 이후 중국의 G2 등극 및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발표에 따른 서진 정책의 실체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는 이전 시기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영향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도, 대중(對中) 협력 및 견제의 필요를 동시에 느끼고 있었던 러시아와 인도의 협력, 인도와 미국 관계 강화에 따라 일정 수준 위기감을 느꼈던 러시아가 인도와 적대적인 관계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는 등등 중앙 유라시아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더욱 복합적인 지역 질서가 형성되었다.[90] 이러한 복합적인 지역 질서의 형성은 궁극적으로 '다지역(multi-regional)'질서의 추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다지역질서란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며 만들어내는 지역적 정치 질서가 모자이크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질서를 의미한다.[91] 이러한 다지역질서는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세계질서'와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까닭에, 서구와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을 많이 공유하고 있는 중앙 유라시아의 주요국에게 있어서 지정학적 지향점이 되고 있다.[92]

본 시기 동안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앙 유라시아 대륙보다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에 지정학적 초점을 둔 이후 미국의 영향력은 중앙 유라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93] 미

---

90)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대한정치학회보』25집 1호 (2017).

91) 신범식,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미 주도 자유민주 질서 회복 vs 러·중 '신형 대국관계' 형성…우크라 전쟁 파장 '신냉전' 가시화," 중앙선데이 (2022.0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2552?sid=102 (검색일: 2022년 7월 1일.).

92) 본 문장은 2022년 10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336호에서 진행된 <지역학과 국제정치 이론> 수업 중 일부 내용이다.

93) 인남식,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중동, 서남아시아 정책 재편 신호,"『KIMS Periscope』247호 (2021).

국은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아브라함(Abraham Treaty)' 협정을 통해 중동 문제의 봉합 및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통해 대중견제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다. 현재 바이든(Joe Biden) 정부에 들어서도 이전 정부의 철군 정책은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도, 호주, 일본 등과 대중견제 협력체인 '쿼드(QUAD)', 호주, 영국 등과 '오커스(AUKUS)' 등을 결성하는 등 미국은 중앙 유라시아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 방점이 둔 대외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미국 영향력의 축소가 가시화되자 역내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공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우선, 경제적으로 러시아는 2015년 1월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4개국을 회원국으로 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가 정식 출범하였다. EAEU는 강력한 초국가적 제도와 거버넌스 중시를 수반하는 EU 모델을 바탕으로 출범하였으며, 구상 과정에서 비록 본 단체가 러시아의 강력한 주도로 형성되었음에도 각 회원국이 EAEU의 공약을 존중하고 협정에 직접 서명을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안보적으로는 CSTO를 통한 훈련을 지속함과 동시에, 미국의 철군에 따라 지정학적 공백이 발생한 아프가니스탄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역내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러시아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이 가시화되자 다른 국가들보다 신속하게 탈레반과 회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지난 2021년 10월 모스크바에서 탈레반이 참석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94]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문제 접근 과정에서 개별국가 차원뿐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안보적 위협에 대해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는 탈레반이 파키스탄, 카타르, 중국 등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어 중앙아시아 국경 지역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CSTO 차원의 연합

94) Reuter, "Moscow invites Taliban to Afghanistan talks on Oct. 20,"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oscow-host-afghanistan-talks-oct-20-2021-10-07/ (검색일: 2022년 3월 6일).

훈련뿐 아니라 양자적 차원에서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강화를 준비하였다. 이 두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타지키스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군사협력 지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95]

중국 역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중앙 유라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었다. 2016년에는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인 AIIB가 설립되었으며, 같은 해 중국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을 거쳐 인도까지 가는 기차가 처음으로 운행되었고, 2018년에는 중국 탕산성(唐山)에서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을 연결하는 기차도 운행되었다. 중국은 대륙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뿐 아니라 해양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Gwadar)이 있다. 이 항구에 대한 접근성을 중국이 확보함에 따라, 중국은 인도양으로의 진출이 가능해졌으며, 그 외에도 대만해협을 비롯하여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전략은 대륙지정학 전략과 해양지정학 전략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대륙과 해양으로의 영향력 확장을 견인하고 있다.[96]

본 시기 동안 인도 역시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중국과도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이 인도에 있어서 가장 큰 경제 교역 대상국이라는 점에서 인도는 필요에 따라 중국과 경제협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도는 안보적으로 미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팽창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인도는 2016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러시아의 첨단 방공미사일인 S-400을 도입하기도 하였다.[97] 이뿐만 아니라 인도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차, 3차 '인도-중앙아시아 대화'를 개최하며 인

95) 김정곤 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세계경제포커스』4권 48호 (2021), pp. 10-11.

96) Mohamad Zreik, "Contemporary Geopolitics of Eurasia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urasian Research Journal*, Vol. 4, No. 1 (2022), p. 8-20.

97) 연합뉴스, "인도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도입"…중국 이어 두 번째," (2016.05.12.),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2160600080 (검색일: 2022년 3월 6일).

도와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상호이익이 되는 지역 및 국제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의지를 다졌다.[98]

이처럼 2015년 이후의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는 미국 영향력의 후퇴, 중국의 본격적인 서진 정책의 시작, 러시아의 개별/다자적 협력을 활용한 지역 영향력 유지 노력, 인도의 세력권 수호 및 확장 모색 등 주요 강대국 사이에 경쟁적 구도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시기보다 복잡한 국면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면이 지역 국가들 사이에 무질서한 각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본 시기는 중앙 유라시아의 주요국들이 상호 세력권의 충돌을 방지하고 경쟁 및 갈등 요인을 적절하게 조율하고 관리하여 다극질서, 더 나아가 다지역질서라는 국제정치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을 이뤄나갈 필요성을 인식한 시기이기도 했다.

제 2 절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발전과정

1) 러시아·인도·중국의 대외질서 인식과 전략

(1) 러시아

옐친 대통령 시기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던 러시아는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등장 이후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외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옐친 대통령 시기에 러시아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후퇴한 가운데 중앙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보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력을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98) 제2차 인도-중앙아시아 대화;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Statement of the 2nd meeting of the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0.10.28.),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3148 (검색일: 2022년 3월 7일); 제3차 인도-중앙아시아 대화: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Statement of the 3rd meeting of the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1.12.19.),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4705 (검색일: 2022년 3월 7일).

목표 아래에서 푸틴 대통령 초기 시기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더 힘써야 한다는 시각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용주의적으로 협력을 진행하되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대외정책을 펼쳐 나가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는 점차 협력에서 견제와 대립으로 변해갔는데,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중앙 유라시아라는 지역의 질서가 다양한 행위자에 의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자신의 전략적 이해 공간을 확실히 수호하겠다는 러시아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0년에 발표한 '국가안보개념(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에서 서방에 대한 견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개념에서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국가들이 국제관계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제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익은 '다극세계(многополярный мир)'의 영향력 있는 중심지 중 하나인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모든 국가와 평등하고 상호 유익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구소련 국가들과도 통합을 촉진하는 것임을 밝혔다.[99] 중앙 유라시아 지역은 러시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전략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대외정책에 있어서 본 지역은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03년의 국정 연설을 통해 러시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는 '독립국가연합(CIS)'과의 관계 강화라고 하며 이들은 러시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CIS 지역이 러시아의 전략적 관심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언급하며 이 지역의 국가들과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하였다.[100]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 공간에서 2003년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어가자 러시아는 경계의식을 형성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색깔혁명을 지역 국가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미국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

9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01. 01. 10.), http://www.kremlin.ru/acts/bank/14927 (검색일: 2022년 7월 24일).

100)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3. 05. 16.), http://www.kremlin.ru/acts/bank/36352/page/1 (검색일: 2022년 7월 24일).

강화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으로 파악하였다.[101]

따라서, 러시아는 상술한 것과 같은 미국의 전략을 견제하고 중앙유라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하여 양자주의, 소지역주의, 다자주의를 동시에 활용하는 중층적 접근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을 펼쳐나갔다.[102] 이와 같은 대외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었다. 푸틴의 대서방 비판 연설이 있었던 2007년의 이듬해인 2008년에 발표된 러시아의 대외정책개념에서는 강대국 러시아에 대한 강조와 NATO의 확장에 대한 견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러시아가 향후 더욱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쳐나갈 의지를 암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103]

2009년 발표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전략(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의 의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자신이 글로벌 행위자로서 다극세계에서 다른 국가들과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을 밝혔다. 또한, NATO의 동방 확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면서,[104]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약속된 2008년 부쿠레슈티(Bucharest) 선언에 관한 러시아의 입장을 드러냈다.[105]

한편, 2010년대 들어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가 점쳐졌다. 당시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메드베데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는 양국의 기존 관계 기조가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노력은 미국의 동유럽 내(內) 'MD(Missile D

---

101) 신범식, 2008, p. 171.

102) 신범식,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41호 (2009), p. 15.

10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8.07.15.), http://www.kremlin.ru/acts/news/785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104) 이러한 것은 2010년 러시아에서 발표된 군사독트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02.05.), http://www.kremlin.ru/supplement/461 (검색일: 2022년 1월 3일).

105) NATO,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2008.04.03.),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8443.htm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efense) 시스템 배치 구상', 스노든 사태, 러시아 내 대규모 반(反) 푸틴 시위 등으로 인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였고,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자국의 대외정책을 기존의 방어적 방어에서 공세적 방어로 바꿈에 따라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과거보다 더 악화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2014년 10월 24일, 푸틴 대통령은 '발다이 클럽(Валдай)' 연설에서 국제질서가 냉전의 승자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하며, 미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간섭과 주권침해 등을 일삼았다고 비판하였다.[106]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발표된 국가안보전략과 대외정책개념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대한 비판을 지속해서 가했으며 강대국으로서 다극세계 창출을 위한 러시아의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러시아는 서방과 같은 정치적 노선을 견지하지 않는 인도·중국 등과의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하기도 하였다.[107]

이후 러시아의 공세적인 대외인식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2021년 발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러시아는 세계 경제 및 정치 발전의 중심지와 지구/지역적 수준에서 일부 국가의 주도권 강화가 새로운 국제정치적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에 더하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서방의 열망은 안보 시스템의 효율성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열망과 국제정치에서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서구의 행동은 안보 보장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하였다.[108]

---

10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2010.10.2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6860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107) 2015 러시아 국가안보전략과 2016 러시아 대외정책개념은 후술하는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31.12.2015 № 683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12.31.), http://publication.pravo.gov.ru/Document/View/0001201512310038?ysclid=l9mf9lxpf2873142917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МИД России,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01.12.),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1538901/?ysclid=l9mfbocsvf65305815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10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07.02.), http://www.kremlin.ru/acts/bank/47046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2) 중국

중국의 대외정책은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리는(韜光養晦)' 정책을 견지하였으나, 후반에 갈수록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1997년 제15차 '전국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全國代表大會上的報告)'에서 국제정세의 추세가 다극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109], 2002년 제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세계의 다극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다양한 세력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진하여 국제 사회의 안정 및 공동 번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110] 이후 중국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에 대한 균형화(balancing)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신(新)국제질서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111] 중국의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탈냉전 이후 2000년대 진입하자 중국은 과거 경제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저비용의 대외전략을 지향했던 도광양회 담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112] 앞서 언급한 2002년 16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華民族的偉大復興)'을 9차례나 역설하기도 하였으며,[113] 그로부터 일 년 뒤인 2003년 보아오포럼(博鰲論坛)에서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부교장(中共中央黨校的副校長)' 정비젠(鄭必堅)은 '화평굴기(和平崛起)' 론을 제시하였다.[114] 한편, 화평굴기론은 점차 2004년부터 후진타오(胡錦

---

109)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 (1997. 09. 12.), http://www.gov.cn/test/2007-08/29/content_730614.htm (검색일: 2022년 7월 25일).

11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江泽民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02. 11. 17.), 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9.htm (검색일: 2022년 7월 25일).

111) 신범식, 2015b, p. 210.

112) 도광양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이동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 『현대중국연구』 21권 1호 (2019), p. 15.

113) 이동률, 2019, p. 15를 참고하여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02. 11. 17.), 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9.htm (검색일: 2022년 7월 25일)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음.

114) 이동률, 2019, pp. 15-16; 郑必坚, "郑必坚：中国和平崛起新道路和亚洲的未来," (20

濤)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의 지도부에 의해 '화평발전(和平發展)'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5년 4월 후진타오 주석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조화세계(和諧世界)'라는 개념 제시를 통해 중국이 부상할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전파하고 설득하고자 노력하였다.[115]

중국은 이러한 노력을 후술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첫째로 스스로가 '책임대국(負責任的大國)'으로서 다극의 한 극이나, 더 나아가 다극의 주도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로 미국·러시아·인도 등을 비롯한 다극 형성의 주체가 되어야 할 주요 대상들과 안정적인 공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었다.[116] 이를 위해서 중국은 무력충돌 상황을 피하면서,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영향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견제해 나가고자 하였다.[117]

후진타오 시기가 끝나고 시진핑(習近平)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중국은 이전 시기보다 '할 일을 하며(主動作爲)' 더욱 적극적인 수준의 대외정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의 화평발전과 조화세계의 기조를 바탕으로 "중국의 꿈(中國夢)"을 달성하는 것에 필요한 우호적인 외부 환경 구축과 국제정치에서 경제적 성장에 기반을 둔 군사력의 확장을 통해 자국 이익의 수호에 적극적으로 나가고자 하였다.[118] 이와 같은 중국 대외정책 변화의 기저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G2 등극과 미국의 영향력 침식이 있었다. 시진핑 시기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는 대등한 관계(新型大國關係)를 설정할 의지를 천명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119] 한편, 중국은 주요 강대국들과는 '신형대국관계'를 설정하였다면

03.11.24.), http://news.sina.com.cn/c/2003-11-24/12541176473s.shtml (검색일: 2022년 7월 26일).

115) 이동률, 2019, pp. 15-16; 新华网, "中国共产党一百年大事记 (1921年7月 - 2021年6月) ," (2021.06.28.), http://www.xinhuanet.com/2021-06/28/c_1127603399.htm. (검색일: 2022년 7월 26일).

116) 이동률,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현대중국연구』21권 1호 (2019), p. 11.

117) 신범식, 2010, p. 212.

118) 신범식, 2015, p. 212.

119) 김흥규,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4):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아시

중앙 유라시아에 대해서는 '친선혜용(親誠惠容)'에 기반을 둔 '주변외교(周邊外交)'를 펼쳐나가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주변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였다.[120]

(3) 인도

탈냉전 이후 인도는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바탕으로 남아시아뿐 아니라 중앙 유라시아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한 인도의 인식이 작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도는 점차 지역 강국으로서 자신 역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 나가며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였다.[121]

냉전 시기 동안 제한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인도 대외정책은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발생한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와 함께 지역적 수준의 주요 국가를 넘어 21세기 지구적 수준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목표로 수정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었다.[122]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인도는 주요 강대국들에 의해 설립된 다자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자 하였다. 더불어, 인도는 '주도국가(leading country)'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며 국제 사회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고자 다양한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끝으로 인도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설립된 UN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인도는 상임이사국과 만남을 진행

아 브리프』1권 26호 (2021), p. 1.

120)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 人民日报海外版, "党报：习近平所倡"亲诚惠容"周边外交凸显中国传统文化智慧," (2016.05.05.),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64944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121) 혹자는 이에 대해 인도의 강대국을 향한 열망이라고 표현한다; Kamal Mitra Chenoy and Anuradha M. Chenoy, "India's Foreign Policy Shifts and the Calculus of Powe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2, No. 35 (2007), p. 3457.

122) 전재성 외. 『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ㆍ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p. 28-29.

할 때, 이와 관련된 자국의 뜻을 꾸준히 알려왔다.[123] 인도의 이러한 대외 정책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에 따라 발생 가능할 여러 위협 요인을 차단하고 자국의 발전을 위한 호혜적인 지역·지구 환경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며 특정한 국가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아닌 다방면적인 외교를 전개해 나갔다.[124] 인도 외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도 외무부 연간 보고서(Indian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에서는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한 인도의 인식을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보고서(2000-2001)'에서 인도는 △영토의 통합성과 주권 보호, △전략적 공간 증진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 확보, △아시아와 세계에서 평화, 안정, 안보 수호 역할 강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의 협력 증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과의 협력 증진 등의 목표를 언급하며 매우 적극적인 수준은 아니나 지역적 수준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125]

한편, 2004년부터 인도는 본인 역할에 대해 한층 강화된 인식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2004년에 발표된 '연간 보고서(2003-2004)'도 인도 대외정책의 몇 가지 원칙과 방향성을 서두에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국제 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인도의 핵심 국익과 고려를 지키는 것, 둘째,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안정·번영, 그리고 세계질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셋째, △국제 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테러리즘 위협에 대항한다.[126]

---

123) 조원득, 2021, p. 7.

124) Indian Ministry of Defense, "Annual Report," (2005), https://www.mod.gov.in/sites/default/files/MOD-English2005_0.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12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0-2001," (2001.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3_Annual-Report-2000-2001.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이후 발표된 연간 보고서는 '연간 보고서(2000-2001)'와 달리 대부분의 지면을 특정한 국가와 지역과 인도의 관계를 다루는 데 할애하고 있는데,

126)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3-2004," (2004.04.01.), http:

이듬해 발표된 '연간 보고서(2004-2005)'에서도 인도의 강화된 자기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인식을 하며 그에 기반을 둔 대외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선언하였다.[127] 그리고 '연간 보고서(2005-2006)'에서 인도는 자국과 세계 간 맞물림(engage)이 주목할만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며, 인도가 평화적이고 호혜적인 국제정치 환경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28]

인도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에서도 인도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05년 6월 인도의 국방부 장관인 쁘라납 묵케르지(Pranab Mukherjee)은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의 연설에서 단극세계는 장기적으로 지속이 불가능하기에 다극세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묵케르지 장관은 인도가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 공화국(IBSA)' 포럼이나, '러시아·인도·중국 간 협력체제(RIC)' 등과 같은 '대륙 간 협력체제(geometries across continent)'를 구축할 의사도 피력하였다.[129] 이러한 인도의 대외정책은 싱 총리의 발언처럼, 전략적 동반자들과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자국의 대외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130]

한편, 인도의 대외정책은 상술한 바와 같은 국가발전이라는 목표 아

//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5_Annual-Report-2003-2004.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127)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4-2005," (2005.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6_Annual-Report-2004-2005.pdf(검색일: 2022년 8월 1일); 인도 국방부에서 발표된 군사독트린은 인도를 세계의 주요 선도국 중 하나로 서술하고 있다; Headquarters Army Training Command, "Indian Army Doctrine," (2004.10.22.), https://www.files.ethz.ch/isn/157030/India%202004.pdf (검색일: 2022년 1월 3일).

12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5-2006," (2006.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7_Annual-Report-2005-2006.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129) Carnegie Endowment, "Address by the Defence Minister Pranab Mukherjee a," (2005.06.27.),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Mukherjee_Speech_06-27-051.pdf. (검색일: 2022년 8월 3일).

130) N. S. Sisodia, "Economic Modernisation and the Growing Influence of Neoliberalism in India's Strategic Thought," Kanti Bajpai et al (eds.), In *India's Grand Strategy*. (New Delhi: Routledge, 2014), p. 183.

래에서 전개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국력이 발전되자 더욱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였다. ‘연간 보고서(2009-2010)’에서는 인도는 자국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국제정치적 질서를 추구한다고 하며, 외교정책은 인도의 핵심 국가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역동적인 적용을 합친 것이라고 밝혔다.[131]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인도는 점차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다른 강대국에 대한 균형화 정책을 펼쳐나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2010년 이후 다시 한번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인도의 노력은 계속되었는데, 2014년 인도의 총리가 된 모디(Narendra Modi)는 인도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 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특히 모디 시기 인도는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국익 극대화 정책을 펼쳐나갔다.[132] 인도는 전략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자신보다 강대국들이 만들어내는 지정학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전략은 중국의 부상 및 확장적 대외정책이 줄 수 있는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딜레마적 상황 속에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국익은 극대화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133] 이에 따라 모디 시기 인도는 신동방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견제 정책인 ‘인도 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에 있어서도 자국만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134]

---

131)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09-2010,” (2010.04.01.), https://www.mea.gov.in/annual-reports.htm?57/Annual_Report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32) 조원득, 2021, p. 3.

133) 조원득, 『모디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동아시아』,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8), p. 17.

134) 이러한 내용은 2016년 모디 총리가 제시한 ‘지역 모두를 위한 안보와 성장(Security and Growth for All in the Region)과 2018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안보대화에서의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모디 총리는 ‘인도-태평양’은 배타적 행위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지배를 위한 그룹화의 영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원득, 2021, pp. 8-9.

2)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인도-중국 관계의 조율

(1) 러시아-인도 관계

러시아와 인도는 다극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전략적 비전 아래에서 안보적으로는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에 대항하고 군사적으로는 무기 수출입, 공동 군사 훈련 등의 군사협력을 이어나가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교류, 교통 회랑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며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발전시켜왔다.

2000년대 중후반 이후 국제정치적으로 러시아-미국 관계 악화, 인도-미국 관계의 비약적 발전, 미국-중국 전략경쟁, 인도-중국 관계 악화 등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러시아-인도 관계 역시 도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하였으나, 양자는 꾸준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고 전략적 비전과 이익에 대한 조율을 계속하여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술한 미국-인도 관계, 인도-중국 관계의 부침은 러시아-인도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결정적인 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러시아-인도 관계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러시아와 인도 관계는 1971년 소련과 인도가 맺은 '평화, 우호, 협력조약(Treaty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이후 꾸준히 발전해왔으며, 양국은 소련 해체 이후 탈냉전기 동안에도 안보·경제·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정도를 키워나갔다.[135] 이후 러시아와 인도는 2000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Declaration on 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해 지속적인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동년(同年) 인도는 미국과의 관계도 강화해 나가고자 하였다. 2000년 미국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여 양자 간 합동 군사 훈련, 무기 판매, 기술 이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과는 질적으로 다른 협력 발전 의지를 다

13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Treaty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1971.10.24.),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5139 (검색일: 2022년 3월 4일.)

지고자 하였다.[136] 러시아는 이와 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초기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바탕으로 미국과도 필요한 사안에 따라서는 협력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으나 미국이 중앙 유라시아에서 필요 이상의 영향력 확장을 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하였기에 인도-미국 관계의 강화에 따른 부작용들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은 러시아의 우려는 2002년 푸틴 대통령과 바지파이(Atal Vajpayee) 총리 사이에 이뤄진 '델리 선언(Delhi Declaration)'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본 선언을 통해 러시아와 인도는 서로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국제정치관과 대외정책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본 선언에서 러시아와 인도는 오랜 전통의 우정과 선린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앞으로 질적으로 새롭고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다극세계 구축을 위해 국가 주권·영토보존·다원성·다양성 및 관용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공감하였다. 더불어 안보적인 필요에 따라 러시아와 인도는 양·다자 간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대응하기도 결정하였다.[137]

이후 2004년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선언에서는 양국은 서로의 대외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협력 가능 분야를 더욱 구체화하였다. 특히 본 공동선언은 이라크전쟁을 통해 중앙 유라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공동선언에서 러시아와 인도가 이라크 내에서 계속되고 있는 폭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한 점은 양국이 이라크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본 선언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정상은 다극질

136) 오세정, "인도, 중국, 미국의 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인도연구』12권 1호 (2007), p. 122.

137)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Delhi Declaration on Further Consolid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2.12.04.),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7677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서에 기초한 민주적인 세계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공동의 전략적 비전을 밝혔다.[138]

러시아와 인도는 안보적 필요에 대해서 테러리즘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화와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를 양국 경제협력의 우선순위로 설정할 것임을 밝히며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약속하였다. 아울러 인도는 러시아의 WTO 가입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양국은 러시아의 WTO 가입 이후 본 다자주의 내에서 상호존중, 평등 및 이익의 원칙에 기초하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끝으로 본 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삼자 협력의 점진적인 심화 발전에 대한 의지를 표하기도 하였다.[139]

물론 이와 같은 일련의 러시아-인도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던 만남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였던 대(對)미국 관계 강화 시도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경쟁적인 구도를 형성해 나가던 러시아에 있어서 큰 상실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140] 그러나 여전히 자국의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인도와의 협력이 필요했던 러시아는 이러한 상실감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꾸준한 소통과 조율을 이어나가며 상호 간 이견을 좁히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러시아와 인도는 2010년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Special and Privileged Strategic Partnership)'으로 한층 더 발전시키며 서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 공동선언에서 인도가 대미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다짐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선언에서 러시아와 인도는 2000년에

---

13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ей," (2004.12.03.), http://kremlin.ru/supplement/2097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13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04.12.03.), http://kremlin.ru/supplement/2097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140) 강봉구,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대한정치학회보』25집 1호 (2017), p. 95.

이뤄진 '러시아-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의 역사적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도 양자는 서로의 관계의 더욱 큰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 즉 다극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인도와 미국의 협력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러시아가 가장 큰 상실감을 느꼈던 국방 분야에서도 인도는 대러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양국은 군사 기술 분야에서의 교류를 러시아·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주요 기둥 중 하나라고 평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141]

러시아와 인도의 정상급 교류는 201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푸틴은 재선 이후 2012년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상호이익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Partnership for mutual benefit and a better world)' 선언을 했다.[142] 그로부터 3년 뒤인 2015년 러시아-인도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유된 신뢰, 새로운 지평(Shared Trust, New Horizon)' 공동성명이다. 본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은 변화하는 국제정치적인 환경 속에서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전략적 이익이 많음을 확인하였다.[143]

그로부터 3년 후인 2018년에 발표된 '변화하는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Россия – Индия: надеж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다. 본 공동선

---

141)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Десятилет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его развития," (2010.12.21.), http://www.kremlin.ru/supplement/825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14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Statement on the 13th India-Russia Annual Summit: "Partnership for mutual benefit and a better world," (2012.12.24.),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0993/Joint+Statement+on+the+13th+IndiaRussia+Annual+Summit+Partnership+for+mutual+benefit+and+a+better+world (검색일: 2022년 10월 31일).

143)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российско-индийское заявление по итогам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и Н.Моди «Через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к новым горизонта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2022.10.25.), http://www.kremlin.ru/supplement/5050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언에서 러시아와 인도는 다극세계를 구축할 것이라는 전략적 비전을 확인하였다.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테러리즘, 마약, 조직범죄 등에 대응할 것을 다짐하였다. 그 외에도 양국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국방 협력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인도에 S-400 미사일을 공급할 것이며, 양자 간 합동 군사 훈련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기존에 논의되어왔던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교통 연결 강화를 위한 '국제남북교통회랑(MTK)'의 개발과 유라시아경제연합과 인도 공화국 간의 FTA 체결 관련 협의 시작과 협상 가속화에 찬성하였다.[144] 이처럼 러시아와 인도는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자 사이에 공유되는 다양한 이익에 기반을 두고 관계를 발전시켜왔다.[145]

(2) 러시아-중국 관계

러시아와 중국은 탈냉전 이후 높은 수준의 관계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 한때 러시아(소련)와 중국은 국경에서 군사적인 충돌을 경험했을 정도로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중후반부터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 때부터 시작된 러시아-중국 관계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은 소련 붕괴 이후 옐친 시기 동안 본격화되었으며 그 결과 두 국가는 1996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도 러시아-중국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였다.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악화, 미국-중국 전략경쟁의 고도화라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두 국가는 '준동맹(quasi-alliance)' 내지 '사실상의 동맹(de facto alliance)'으로 규정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다.[146]

---

144)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Россия – Индия: надеж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и Н.Моди," (2018.10.05.), http://www.kremlin.ru/supplement/5343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145) 인도의 국가 안보전략 드래프트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ndian National Congress, "Ind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9.03), https://manifesto.inc.in/pdf/national_security_strategy_gen_hooda.pdf (검색일: 2023년 1월 3일).

러시아와 중국은 중앙 유라시아의 핵심 국가로서 지역 내 단일 패권 국가의 등장을 경계하고,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등 현존하는 역내 안보 위협에 대해 공동대응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경분쟁, 다자주의 중첩 등 갈등 유발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조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은 러시아와 중국의 노력을 2000년대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2001년 체결된 '선린·우호조약(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은 향후 양국관계의 청사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지닌다. 본 조약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해 비슷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두 국가는 그들이 마주한 갈등 유발 요인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본 조약에서 양국은 러시아-중국 관계의 악화 원인이었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갈등 해결을 위해 상호 병력을 감축할 것을 밝혔다. 더불어, 러시아와 중국은 지구적 수준에서 전략적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것도 다짐하였다.[147]

한편, 미국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며 중앙 유라시아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자 러시아와 중국은 양자 관계의 발전을 통해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듯 중앙 유라시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던 일련의 반체제 움직임은 역시 두 국가가 미국에 대해 공동의 위협을 형성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큰 걸림돌 없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005년 7월 1일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블라

---

146) A. Lukin, "The Russia-China entent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Politics*, Vol. 58 (2021).

147)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2001 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2001.07.16.), http://www.kremlin.ru/supplement/3418 (검색일: 2021년 9월 19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세기 국제질서에 관한 러시아-중국 공동성명(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рядке в XXI веке)'를 발표하며 다극세계와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기도 하였다. 더불어 주권국가의 객관적인 사회 발전과정을 무시하고 민족적 증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하며 역내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였던 서방의 국가들에 대한 경계의식을 드러냈다. [148]

이후 양국은 같은 해 테러리즘, 극단주의, 분리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행동을 취하기 위한 '평화 사명(Мирная миссия – 2005)'으로 불리는 최초의 공동 군사 훈련도 진행하기도 하였다. 2006년에는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장기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양국 간 상호 간의 존중, 평등, 지원, 그리고 신뢰 증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관계를 공동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양국은 2006년에는 중국에서 '러시아의 해(Год России)'를, 2007년에는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Год Китая)'를 선포하며 양자 간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149] 그리고 이듬해인 2008년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의 갈등을 유발하였던 원인인 국경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150]

한편, 2010년 이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G2 국가에 등극하고 2014년에는 서진(西進) 정책의 하나로 일대일로(OBOR, 이후 BRI로 변화)를 발표하자 러시아와 중국이 중앙 유라시아라는 지역에 대해 형성하고 있는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되었다. 왜냐하면, 러시아 역시 이와 비슷한 시기인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을 출범시키며 본

---

14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рядке в XXI веке," (2022.06.30.), http://www.kremlin.ru/supplement/3660 (검색일: 2021년 9월 19일).

149) 중국에서의 '러시아 해' 홈페이지는 다음을 참고 http://russian.china.org.cn/russian/222334.htm; 러시아에서 '중국의 해' 홈페이지는 다음을 참고; http://russian.china.org.cn/international/archive/zhongguonian/node_7014420.htm

150) РИА Новости, "История пограничного вопрос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Справка," (2008.07.21.), https://ria.ru/20080721/114550501.html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지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자국의 지정학적 이해를 축소 혹은 위축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151]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은 양국 간에 있을 수 있는 긴장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였다.[152] 예를 들어, 양국은 2015년 5월 러시아와 중국은 'EAEU와 일대일로 사업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를 체결함으로써 두 사업의 전략적인 연계를 진행하고자 하였다.[153] 그리고 2017년에도 중국 상무부는 두 나라는 양자 사업의 연계 추진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 합의할 것이라 밝혔다.[154]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중국은 EAEU와 경제무역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에너지를 비롯해 물류·기술·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155] 이처럼 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두 다자주의를 지역 내에서 상호 배타적이기보다는 협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충돌의 가능성을 줄여나갔다.

상술한 바와 같은 전략적 이해의 조율로 인하여,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2010년대 중반 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2014년 5월 러시아와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작용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음을 강조하였다.[156] 더불어, 같은 해 러시아와 중국은 '상하이 협정(Шанхайские соглашен

---

151) 이상준,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러시아연구』29권 1호 (2019), p.231.

152) 김영진, "유라시아의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BRI),"『슬라브학보』34권 1호 (2019), p. 202.

153) TASS, "Russia and China agree on integration of Eurasian Economic Union, Silk Road projects," (2015.05.08.), https://tass.com/economy/793713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154) 연합뉴스, "중·러, 일대일로-유라시아경제연합 연계 추진," (2017.07.03.), 2017년 7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3093400074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155) 중앙일보, "유라시아 FTA 체결 경쟁에 다급해진 무역업계," (2018.06.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26253#home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156)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новом этапе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2014.05.20.), http://www.kremlin.ru/supplement/1642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ия)'을 통해 에너지, 전력망, 운송을 비롯한 약 40개의 부문에 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천연가스 수송관인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중국은 러시아 사할린 내 유전에 대한 투자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러시아 철도와 중국 국영 철도 회사는 양자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양국을 잇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157]

2019년, 러시아와 중국은 '신시대 러중 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선언을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노력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본 선언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정치·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158] 2022년에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관계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더욱 전략적으로 밀착되었음을 드러냈다. 가령, 중국은 NATO의 추가 팽창을 반대한다고 선언하였으며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함을 밝혔다.[159]

(3) 인도-중국 관계

인도-중국 관계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세 쌍의 관계 가운데 가장 취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다. 인도-중국 관계는 표면적으로 러시아-중국, 러시아-인도 관계와 비교했을 때 경쟁적·갈등적 구도를 더욱 띠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인도-중국 관계의 적절한 조율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형성 및 발

---

157) РИА Новости,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проекты в 2014 году," (2014.10.14.), https://ria.ru/20141014/1028257929.html (검색일: 2022년 3월 6일.).

158)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2019.07.05.), http://www.kremlin.ru/supplement/5413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159)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и глобальном устойчивом развитии," (2022.02.04.), http://www.kremlin.ru/supplement/5770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전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인도와 중국 역시 오랜 기간에 걸쳐 경쟁과 갈등 요인에 대해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인도와 중국은 모두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특정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지역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국가는 지역·지구적 차원에서 다극질서를 구축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도와 중국은 지역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등의 안보적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협력의 점진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중국은 2009년 이후 인도의 최대 교역상대국이 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인도와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에너지 협력, 다자무역협상, 기후변화협약 등에서 공동의 뜻을 맞춰 나갈 필요 아래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160]

이처럼, 인도와 중국은 경쟁과 갈등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다양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를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중국과 인도는 양자 간 소통과 최소한의 조율 과정을 통해 관계의 와해(瓦解)를 방지하고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은 1980년대 이후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봉합하고 협력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였다. 예컨대, 인도와 중국은 1993년 실질통제선에 대한 평화 및 평온 협정을 체결하고 1996년 실질통제선 신뢰구축조치 합의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국경분쟁과 인도의 핵실험 문제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161]

그러나 흥미롭게도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개시하던 2003년,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160) 백준기, 2012, p, 168, 175; 기후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양국은 지난해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래스고 기후 조약은 원래 석탄 발전의 '중단'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의 반대로 석탄 발전 중단이 아닌 '감축'으로 내용이 변화하게 되었다; Financial Times, "COP26 agrees new climate rules but India and China weaken coal pledge," (2021.11.14.), https://www.ft.com/content/c891d4af-f80b-48f0-8b6f-a8763655c936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161) 김찬완, 2010, p. 63; 백준기, 2012, p. 168.

두 국가 모두 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질서 건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인도와 중국의 두 총리는 '중국-인도 관계의 원칙과 전면 협력 선언(中華人民共和國和印度共和國關係原則和全面合作的宣言)'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본 선언에서 양국은 인도-중국의 우호 협력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안정·다극화를 촉진한다고 밝히며 장기적이고 건설적인 동반자관계의 발전을 위한 원칙에 합의하였다.[162]

이러한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은 평화공존 5원칙, 상호존중과 배려, 평등의 토대 위에서 장기적인 건설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163] 둘째, △중국과 인도 양측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폭넓은 공통의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과 국제 업무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보다 광범위하고 긴밀한 협력을 진행한다. 셋째, △양국 공통의 이익은 이견보다 더 크며 서로 위협하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며, 이것이 양국 관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없다.[164]

이러한 원칙들은 현재까지도 양국관계의 청사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비록 지켜지지 않는 것들(ex. 무력사용 금지)이 있지만, 갈등으로 인하여 양국관계가 완전히 경직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경문제와 관련된 갈등적 상황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과 인도는 '국경문제특별대표회의(邊界問題特別代表會晤)'를 2003년 이후 꾸준히 개최하며 갈등적 상황을 조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이어 2005년 뉴델리에서 열린 인도와 중국 총리 사이의 만남은 두 국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

---

162)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印度共和国关系原则和全面合作的宣言," (2003.06.23.),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23718.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163) 평화공존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화적 공존

16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3.06.23.),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23718.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등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밀착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 우선, 본 만남을 통해 중국과 인도는 사이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가 맺어졌다. 또한, 뉴델리에서의 만남을 통해 두 국가는 대외적으로 국제질서의 민주화라는 전략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을 발전시켜나가기로 다짐할 수 있었다. 끝으로 중국과 인도는 그들을 둘러싼 국경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에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의정서도 채택하였다.[165] 본 남으로부터 한 달 뒤인 2005년 5월에는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방 분야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기도 하였다.[166]

이듬해인 2006년 인도 뉴델리에 후진타오 주석이 방문하여 싱 총리와 진행한 회담은 인도-중국이 상호 간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회담 이후 발표된 양 국가는 △인도와 중국은 호혜적인 동반자라는 점, △다극질서 아래에서 대국으로서 중국과 인도의 동시적 발전이 미래의 국제체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양국의 포괄적인 경제 무역 관계가 인도-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점,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 △2005년 5월 29일에 체결된 중국과 인도 국방부 간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각서를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 △러시아·중국·인도 3자 대화 메커니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특히 본 회담을 통해 새롭게 창설된 '전문가급 메커니즘(ELM)'은 인도와 중국이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중국명: 雅鲁藏布江)강을 두고 펼친 갈등이 일정 수준 해소되는 것에 기여하기도 하였다.[167]

---

16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与印度共和国联合声明," (2005.04.1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4191.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166) 中华人民共和国驻印度共和国大使馆, "中印签署的防务领域谅解备忘录不针对任何第三方," (2006.05.30.), http://in.china-embassy.gov.cn/chn/ssygd/zyyhn/jsjl/200605/t20060530_2364747.htm (검색일: 2023년 1월 9일).

16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国和印度发表《联合宣言》(全文)," (2006.11.22.), https://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281112.htm (검색일: 2022년 8월 25

2008년, 인도 싱 총리의 중국 방문 이후 양국 간 '21세기 공동비전'에 대한 선언이 이뤄졌는데, 본 선언에서 인도와 중국은 다양성이 인정되는 국제질서는 평화유지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민주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168] 2010년에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인도에 방문하여 싱 총리를 만났는데, 이 만남에서 양국은 경제 교류 증진 등을 비롯한 양자 관계를 더욱 큰 폭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169]

2011년 인도와 중국은 양자 간 상업·경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 경제 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출범시켰다.[170] 2012년에는 인도와 중국 사이에 '국경문제의 논의와 공조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이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국경방위협정(Border Defence Cooperation Agreement)'이 맺어지는 등[171] 인도와 중국은 양자 간 갈등 요인 조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172]

일).

16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 Shared Vision for the 21st Century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01.14.), shorturl.at/FUZ39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69)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Communiqué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12.16.),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5158/Joint+Communiqu+of+the+Republic+of+India+and+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70)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nnual Report 2011-2012," (2012.04.01.), https://mea.gov.in/Annual_Reports.htm?57/Annual_Report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71) 2012년 국경문제의 논의와 공조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China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 (2012.01.17.),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17963/IndiaChina+Agreement+on+the+Establishment+of+a+Working+Mechanism+for+Consultation+and+Coordination+on+IndiaChina+Border+Affair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2013년 국방방위협정;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Border Defence Cooperation," (2013.10.23.),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2366/Agreement_between_the_Government_of_the_Republic_of_India_and_the_Government_of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_on_Border_Defence_Coope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7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Stat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ia," (2013.05.20.),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1305/t

2014년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하며, 인도와 중국은 서로의 관계를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173] 2015년 공동성명에서는 인도와 중국 정상은 양국관계가 아시아뿐 아니라 지구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관계라고 평가하면서 정치적 소통과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174] 이와 같은 공식적인 회담을 제외하고도 인도와 중국 정상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비공식 회담을 꾸준히 양자적/국제정치적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한 조율을 지속하고자 하였다.[175]

이처럼 인도와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서로에 대한 인식 아래에서 공통된 이익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176]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경지대를 둘러싼 인도와 중국의 지속적인 충돌은 양국관계가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발전되는 것에 있어서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두 국가는 경쟁과 갈등 요인을 최대한 관리하고 조율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20130522_679346.html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73)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Stat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Building a Closer Developmental Partnership,” (2014.09.19.),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4022/Joint+Statement+between+the+Republic+of+Inia+and+the+Peoples+Republic+of+China+on+Building+a+Closer+Developmental+Partnership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17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Stat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ia,” (2015.05.20.),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1505/t20150520_679401.html (2022년 10월 25일).

17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China Informal Summit at Wuhan,” (2018.04.28), https://mea.gov.in/press-releases.htm?dtl/29853/IndiaChina_Informal_Summit_at_Wuhan (2022년 10월 25일);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nd India-China Informal Summit,” (2019.10.12.), https://mea.gov.in/incoming-visit-detail.htm?31938/2nd+IndiaChina+Informal+Summit (2022년 10월 25일)

176) 예컨대, 지난 2022년 8월 19일 자이샨카르(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와 중국의 공통 이익이 차이점보다 더 크다고 언급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상호 발전이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中国青年报, “外交部：中印双方有能力实现相互成就，而非彼此消耗,” (2022.08.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41582568799633156&wfr=spider&for=pc (검색일: 2022년 9월 7일).

지구적·지역적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 왔고, 경제 부문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인도-중국은 여러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진행하며 그들의 관계를 꾸준히 관리해왔고, 그 결과 이들 관계는 단순히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지기보다는 협력·갈등·경쟁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제 3 절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단계별 발전

지금까지 살펴본 탈냉전기부터 현재까지의 지역 질서 변동과 그에 따라 이뤄진 개별국가의 인식 형성, 그리고 양자적 수준의 상호작용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변화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동시에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부침은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동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주었다.

1997년 러시아의 프리마코프 총리는 러시아·인도·중국이 국제문제에서 자율성과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극세계 건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2005년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의 블라디보스토크 회담이 있기 전까지 세 국가의 관계는 양자 관계의 합을 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본 시기 동안 러시아는 각각 중국, 인도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구 및 지역 질서에 대한 공동비전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동력을 마련하였으나, 인도-중국 관계가 적절하게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1997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은 러시아·인도·중국은 삼자 간 전략협력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타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인도와 중국 역시 상수로서 존재하는 갈등을 적절히 조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90년대 전반에 걸쳐 강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00년대 들어서는 양자를 넘어 '삼자' 간의 협력 발전을 다양한 상호

작용이 이뤄졌다.

세 국가는 2001년 '21세기의 러시아·인도·중국'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민간부문 회의 이후 3~4년의 기간 동안 다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의 틀을 활용하여 삼자 간 전략적 밀착을 강화하기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갔다. 2001년 연구 프로젝트의 이듬해인 2002년 러시아·인도·중국은 뉴욕 UN 총회에서 제1회 삼국 외무장관 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를 통해 러시아·인도·중국은 구체적인 국제정치적 사안에 대해 정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다. 같은 해 말 푸틴 대통령은 인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인도·중국의 관계를 '전략적 삼각관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이후 2005년 전까지 러시아·인도·중국은 2002년과 마찬가지로 다른 국제기구의 틀을 활용하여 세 차례의 회담을 이어나가며 전략적 협력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177]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중앙 유라시아에서 적극적인 영향력 확장을 모색함에 따라 지역 질서는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동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인도·중국은 대립과 갈등보다 협력이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는 전과는 다른 차원의 양자관계 발전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인도와 중국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 쌍의 양자관계가 크게 발전하는 것을 지켜보며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은 삼자 협력의 발전을 위한 조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178] 이에 따른 결과로 2006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최초로 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179]

2005년 이후 2017년까지에 이르는 조율 및 형성 단계 동안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쟁 및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 취약한 변(side)에

---

177) 백준기 외, 2012, p. 19.

17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informal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India, Russia and China,"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179) 青岛新闻网, "胡锦涛出席中俄印领导人会晤," (2006.07.18.),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06-07/18/content_7285420.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대한 적극적인 조율 노력이 이뤄졌다.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5년 이후 중앙 유라시아에서는 대미 대항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지역 국가들 사이의 연대가 나타났으며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의 전략적 유대관계가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인도는 2007년 러시아와 중국이 주축이 되어 발전해 나가고 있었던 SCO의 준회원국 자격을 얻기도 하였으며 중앙 유라시아에서 미군 공군기지가 폐쇄되는 것에 큰 역할을 하였던 2007년 7월 SCO 정상회의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인도가 SCO의 준회원 국가로 합류한 이후 삼자 협력의 틀 속에서 인도의 SCO 가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였으며, 각자는 상대국들의 국제정치적 활동에 대해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본 단계에서도 인도와 중국은 국경문제를 적절하게 조율하고 관리하기 위한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비록 2010년 이후 중국이 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남아시아의 지역 강국이었던 인도는 중국의 의도를 경계하고 의심하게 되었으나, 두 국가는 고위급 회담이나 조약체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러한 의심을 관리하며 경쟁·갈등 요인에 대한 조율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였다.[180]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7년 인도는 SCO에 가입하게 되었다. 인도의 SCO 가입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형성과 조율 단계를 거쳐 발전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오랜 기간 지구나 지역 질서에 대한 비전을 공유해왔던 러시아·인도·중국은 SCO 내에서 중추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SCO의 확대나 방향성 설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SCO가 지역적 수준의 협력체라면 보다 지구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BRICS 내에서도 러시아·인도·중국은 중심적인 네트워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17년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완성 단계에 진입한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제2회/3회 삼국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 역시 주목할만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181]

---

180) 강봉구,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의 국제정치,” 『중소연구』 42권 4호 (2018), p. 276.

이처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모색 단계, 조율 및 형성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를 거치며 발전해왔다. 초반에 강하지 않았던 삼국 협력의 동력은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 변동 대한 세 국가의 인식변화와 그에 따라 나타난 세 쌍의 양자관계의 적절한 조정으로 인하여 점차 강해질 수 있었다. 202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도 인도와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혼란스러운 국제정치적 상황에서도 견고한 협력체로 작동하고 있다.

제 4 절 소결

본 장은 지난 15년의 기간 동안 발전해온 러시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장은 우선 1990년대 후반 이후 2022년 현재까지의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2001년 미국의 중앙 유라시아 진출 이후 지역 질서는 몇 차례의 부침을 겪었고, 그 속에서 지역 내 전략적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이 국제정치적 환경에 대해 형성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은 삼자 사이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모색되고 형성·조율되며 완성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다.

2005년 이후부터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전략적 행위자 사이의 갈등 및 경쟁 요인에 대한 조율도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가령,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인도와 중국이 만들어낸 국경문제 관리를 위한 협정 및 틀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

18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习近平出席中俄印领导人非正式会晤.” (2018.12.01.), https://www.fmprc.gov.cn/web/tpxw/201812/t20181201_267774.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ндии и Китая,” (2019.06.28.),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846 (검색일: 2023년 1월 9일).

다.

2017년 인도의 SCO 가입에 따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세 국가 간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지구 및 지역적 수준에서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국제정치적 질서 형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세 국가가 지역적 수준의 강대국으로 자신의 힘을 관철할 수 있는 세력권을 유지하고 관리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지역질서의 추동을 목표로 아래에서 전략적 협력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은 <표3-1>과 <표3-2>에서 확인할 수 있다.[182]

182) 표 3-1과 표3-2는 신범식, "지정학적 중간국 우크라이나의 대외전략적 딜레마," 『국제·지역연구』 29권 1호 (2020), p. 42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였음;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협정이나 합의는 비록 시기적으로 1997년 이전의 것이더라도 본 연구에서 다루었음.

<표3-1>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모색 단계 - 조율 및 형성 단계

차원 \ 시기		모색 단계		조율 및 형성 단계
		미국의 지역 질서 재편 노력 (1997~2004)		미국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새로운 질서의 모색 (2005-2009)
개별 국가	러시아	**옐친1기·2기**: 수세적 수세의 영향력의 보존 노력과 한계	**푸틴1기**: 실용적·중층적·견(牽) 서방 외교	**푸틴2기·메드베데프1기**: 강대국 외교와 다극적 균형화 정책
	인도	**구지랄·바즈파이**: 발전을 위한 호혜적 국제정치 환경 조성		**싱**: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네트워크의 강화
	중국	**장쩌민**: 도광양회	**후진타오**: 유소작위/화평굴기	**후진타오**: 화평발전/조화세계
양자	러-인	2000: 전략적 동반자관계	2002: 델리선언 2009: 전략적 동반자관계 심화 선언	2010: 특별하고 특권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
	러-중	1996: 전략적 동반자관계	2001: 선린·우호조약	2005: 21세기 신국제질서 선언
	인-중	1993: 실질 통제선에 대한 평화 및 평온 유지 협정 1996: 실질 통제선 신뢰구축조치 합의	2003: 인-중 관계의 원칙과 전면적 협력 선언	2005 :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 양국 국방부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각서 체결 2006: 브라마푸트라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중국 전문가 레벨 메커니즘(ELM) 창설 2008: 21세기 공동비전 선언
삼자	러·인·중	1997: 프리마코프 구상 2001: 21세기 러시아·인도·중국 연구프로젝트 2002: 최초의 비공식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		2005: 제1회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 개최 2006: 제1회 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담 2007: 인도의 SCO 준회원국 가입 2009: 인도 총리의 SCO 정상회담 참여(최초)

<표3-2>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조율 및 형성 단계 - 완성 단계

차원 \ 시기		조율 및 형성 단계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재편기 (2010-2014)	발전 단계 주요 지역 국가들의 부상과 다(극)지역질서의 추동 (2015-현재)
개별 국가	러시아	**메드베데프1기·푸틴3기:** 강대국 외교와 다극적 균형화 정책	**푸틴3기·푸틴4기:** 공세적 방어전략과 세력 유지 및 강화 정책
	인도	**싱:** 다극적 균형화 정책	**모디:** 비동맹 원칙과 전략적 자율성에 기반을 둔 이익외교
	중국	**후진타오·시진핑:** 주동작위	**시진핑:** 중국몽/신형대국관계
양자	러-인	2012: 상호 호혜적이고 나은 세상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선언	2015: 공유된 신뢰, 새로운 지평 선언 2018: 변화하는 세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러시아-인도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
	러-중	2014: 러시아-중국 공동선언, 상하이 협정	2015: EAEU - 일대일로 사업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 2019: 신시대 러-중 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선언 2022: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국제관계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
	인-중	2011: 전략 경제 대화 출범 2012: 국경문제 논의와 공조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 2013: 국경방위협정	2014, 2015: 인도-중국 공동선언
삼자	러·인·중	2016: 인도의 SCO 가입 절차 시작	2017: 인도의 SCO 가입 2018, 2019: 제2회, 3회 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담 2022: SCO/BRICS 확장 모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협력 강화

IV.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기제

본 장은 러시아·인도·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기제인 △소통을 통한 입장 조율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프로젝트 실천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첫 번째 작동기제인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단계에서는 갈등 및 경쟁 요인에 대한 조율,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 논의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두 번째 작동기제인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단계에서는 세 국가가 대외적 비전에 대한 공유와 함께 안보·경제 분야에서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2절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실제로 어떠한 전략적 비전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마지막 작동기제인 실천의 단계에서는 세 국가의 협력 가능성을 실제의 프로젝트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3절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실천한 프로젝트인 SCO와 BRICS에 초점을 맞춘다. 본 절의 핵심 주장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SCO와 BRICS 내에서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회원국 사이의 이뤄지는 협력의 과거와 현재를 검토하고 미래의 협력을 위한 추진력을 형성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SCO와 BRICS 내부에서 러시아·인도·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주(主)인도 러시아 대사의 인터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세 국가는 SCO와 BRICS와 같은 다자 간 기구의 의제를 지원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83]

---

183) The Times of India, “RIC has incredible potential for cooperation: Russian envoy,” (2022.09.0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ric-has-incredible-potential-for-cooperation-russian-envoy/articleshow/93982504.cms (검색일:

제 1 절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1) 경쟁·갈등 요인의 조율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작동하는 데에 있어서 경쟁 및 갈등 요인을 조율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국가는 양자적 차원에서 조약체결과 성명 발표 등의 노력을 통해 경쟁 및 갈등 요인 조율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노력이 양자적 차원뿐 아니라 삼자적 차원에서도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러한 조율의 과정은 러시아의 적극적인 조율 노력과 인도와 중국의 제한적이지만 열려있는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인도-중국 국경분쟁 조율은 삼자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 및 갈등 요인에 대한 대표적인 조율 사례이다.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관계와는 달리 인도-중국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인도-중국 사이의 문제는 두 국가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함과 동시에, 이면에서는 본 문제를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다루고자 한다.[184)]

러시아가 본 관계를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관계의 협력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경쟁 및 갈등 구도가 적절하게 조율되어 러시아·인도·중국 삼각관계가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에 있어서는 큰 대외정책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는 자국이 중앙 유라시아의 두 강대국과 협력적 기조가 강하게

2022년 11월 14일).

184) Atul Aneja, “Ladakh face-off | Russia begins discreet moves to defuse India-China tension,” (2020.06.19.),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ladakh-face-off-russia-begins-discreet-moves-to-defuse-india-china-tension/article61665938.ece (검색일: 2022년 1월 3일).

작동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에 놓여 있는 경쟁 및 갈등 요인의 조율을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대외정책적 이득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삼자적 수준에서도 고강도의 협력을 유지 및 추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틀 내에서 인도-중국의 국경분쟁이 소통을 통해서 조율된 대표적인 사례는, 본 관계가 2017년 발전 단계에 진입한 이후인 2020년 6월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인도-중국 군사충돌을 관리하기 위해 이뤄진 모스크바 공동선언이다. 1975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한 첫 유혈사태였던 2020년 군사충돌에서 인도와 중국 군인 약 40명이 사망하였다.[185] 이는 인도와 중국 관계의 악화뿐 아니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관계가 와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에,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 사이의 갈등적 상황을 봉합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선 카슈미르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후 약 일주일 뒤, 러시아 라브로프 장관의 주재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화상회의가 열렸다. 비록 본 회의에서 인도와 중국의 갈등적 상황이 공식적인 의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두 국가의 외무장관을 한 자리에 모은 것은 성과였다.[186] 그로부터 3개월 뒤인 9월 모스크바에서 다시 한번 인도와 중국의 외무장관이 갈등 발생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를 진행하였다. 본 회의는 라브로프 장관의 주선으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 인도와 중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방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오찬에서 양국 외무장관 회의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187] 본

185) BBC NEWS KOREA, “인도-중국 카슈미르 라다크 충돌...최소 20명 사망,” (2020.06.17.),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3059299 (검색일: 2023년 1월 3일).

186) Artyom Lukin, “How Russia emerged as key mediator in the China-India dispute,” (2022.10.23.), https://www.eastasiaforum.org/2020/10/23/how-russia-emerged-as-key-mediator-in-the-china-india-dispute/ (검색일: 2023년 1월 3일).

187) Suhasini Haidar and Ananth Krishnan, “India, China agree on 5-point plan to de-escalate LAC stand-off,” (2020.9.11.),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lac-standoff-india-china-agree-on-5-point-plan-for-resolving-border-tension/article32577886.ece (검색일: 2023년 1월 3일).

회의 이후 인도와 중국의 외무장관은 공동기자성명을 발표하며 인도-중국 접경 지역의 상황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188] 이 외에도 러시아는 두 국가가 갈등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중국의 군대와 그 관계자를 한곳에 모아 공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러시아는 자국 주도로 양국의 갈등을 삼자적 수준에서 다루고 조율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189] 한편, 러시아는 지역 내에서 인도와 중국 사이의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인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외무장관은 제15차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삼자 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서 일대일로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강조와 함께, 러시아 외무장관은 싱크탱크 연설에서 일대일로에 인도가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190]

2)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구축

러시아·인도·중국은 외무장관이나 정상 간의 만남 등 고위급 수준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그 아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정례화된 만남을 이어갔다. 러시아·인도·중국은 고위급 수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2021년까지 총 18차례의 외무장관 회의와 3차례의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삼국 협력의 발전 방향 등을 의논하였다. 이러한 꾸준한 만남이 바탕이 되어 러시

18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Press Statement - Meeting of External Affairs Minister and the Foreign Minister of China (September 10, 2020),” (2020.09.10.),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2961/Joint_Press_Statement__Meeting_of_External_Affairs_Minister_and_the_Foreign_Minister_of_China_September_10_2020 (검색일: 2023년 1월 3일).

189) Kiran Sharma, “Russia drills set stage for China, India troops to meet amid tension,” (2022.08.29.), https://asia.nikkei.com/Politics/International-relations/Russia-drills-set-stage-for-China-India-troops-to-meet-amid-tension (검색일: 2023년 1월 3일).

190) The Times of India, “Russia pitches for India's participation in OBOR,” (2017.12.1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russia-pitches-for-indias-participation-in-obor/articleshow/62028052.cms (검색일: 2023년 1월 3일).

아·인도·중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RIC(Russia-India-China)'으로 불리기도 하며 세 국가에 있어서 대외정책적 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에서는 삼국 협력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실무적 차원에서도 삼국 협력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제도 구축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삼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인도·중국은 실무진 수준에서의 소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갔다.

이와 같은 노력을 세 국가의 정상도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06년에 진행된 최초의 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담에서 세 국가의 정상들은 외무장관 회의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 국가 간 공감대를 확대하고 심층적인 실무 협력을 수행할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191] 지속적인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관한 논의는 초반에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후에는 정치, 군사, 학문 등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었다.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장관들은 러시아·인도·중국이 교통, 농업, 에너지 및 하이테크 산업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각국 간 직접적인 경제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2006년 3월에 인도에서 3국 기업인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192] 마찬가지로 2007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세 국가의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場)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지속하여 성장하고 있는 세 국가의 경제 및 산업계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러시아·인도·중국 비즈니스 포럼을 조직하기로 합의하였다.[193]

---

191) 青岛新闻网, (2006.07.18.),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06-07/18/content_7285420.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9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19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 of India, Russia and China," (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

2007년 하반기에 중국 하얼빈에서 다시 한번 열린 3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협력의 범위를 실무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은 삼국 비즈니스 포럼을 12월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하였다.[194] 더불어, 본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지역 및 지구에서 발생하는 국제정치적 현안에 대한 세 국가의 공조와 협력을 약속하고 실무진 수준에서 국장급/과장급 협의 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세 외무장관은 세 국가의 학자들 간의 모든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2008년에 '지정학적 전략 동향 진화(the evolution of geopolitical strategic trends)'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195]

이 외에도 2016년 말부터 러시아·인도·중국은 지역적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대화의 틀을 추가로 만들었다. 2017년 12월 뉴델리에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 따르면 러시아·인도·중국은 2016년 12월 베이징에서 제1회 3국 '아시아·태평양 문제에 관한 협의체(亚太事务磋商)'를 가동하였고 2018년 상반기 뉴델리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196] 더불어, 2020년에는 제1회 러시아·인도·중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를 합의하면서, 안보 부문에 관한 삼자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한 의지를 다져나갔다.[197]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안보와 관련 있는 국제정치적 현안을 제외하고도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농업, 재난관리, 의약

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9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Communiqué of the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7.10.24.), https://mea.gov.in/outoging-visit-detail.htm?5926/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9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Joint Communiqué of the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7.10.24.), https://mea.gov.in/outoging-visit-detail.htm?5926/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9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五次会晤联合公报," (2017.12.12.), https://www.fmprc.gov.cn/ce/ceun/chn/zgyw/t1518872.htm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197) ТАСС, "Лавров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Индия и Китай не намерены входить в клинч с Западом," (2020.06.23.), https://tass.ru/politika/8796357 (검색일: 2022년 11월 8일).

품, 보건 등을 담당하는 세 국가의 정부 부처 간에 실무적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더불어, 기업 간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을 2007년 연말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198]

2008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1회 비즈니스 포럼의 개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2009년에서 제2회 비즈니스 포럼 개최도 합의하였다. 동시에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은 세 국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밑바탕을 다져나가기로 하였는데,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와 인도의 상공회의소 대표와 중국의 국제무역진흥위원회(中國國際貿易促進委員會) 대표를 모으기로 합의하였다.[199] 그 외에도 예카테린부르크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경제적 차원에서도 삼국 간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발생하였음도 확인할 수 있다.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2008년 4월에는 베이징에서 삼국 농업협력포럼이 열렸음도 확인하였다. 아울러 삼국 외무장관은 2007년 12월, 뉴델리에서 처음으로 3국 기업인 회의가 열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2008년 가을 모스크바에서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러시아 및 인도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2009년 중국에서 3자 기업인 회의가 열린 것을 밝혔다.[200]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본 회의에서 삼국 외무장관은 2008년 2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인도·중국 외교부 지역부 국장급(部地區司司長) 협의회가 이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지난 2008년 3월 뉴델리에서 삼국 관료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던 지정학적 동향 세미나가 러시아·인도·중국의 정부와 학계 간 대화 촉진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201] 2009년 벵갈루루에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소통 의

198)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07.10.24.), https://mea.gov.in/outoging-visit-detail.htm?5926/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19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交部长会晤联合公报,”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0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0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러시아·인도·중국은 농업, 의료, 에너지, ICT,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삼국 전문가 사이의 교류와 소통을 강화할 것을 다짐하였다.[202] 2010년 우한에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기존에 소통이 진행되던 농업, 재난, 보건의료, 비즈니스 분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3국 싱크탱크 회의가 이들의 정치·전략적 문제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추가로 본 회의에 인도 및 중국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에너지 및 혁신 분야 협력 구상을 환영하고 전술한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203]

이후 2010년대 중반까지 진행된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다양한 분야의 소통 창구에 대한 점검과 향후 논의가 이뤄졌다. 2016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모인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은 청년 외교관 상호 방문을 포함하여 의회·언론·문화 등에서의 교류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204] 그리고 2017년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청년 외교관 교류를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본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2017년 1월 중국이 제1차 삼국 청년 외교관 교류를 개최한 것을 환영했고, 2018년 인도에서 제2차 삼국 청년 외교관 교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205]

이처럼 러시아·인도·중국은 삼국 간 실질적인 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창설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표4-1>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삼국 간 소통이 주로 이뤄지는 분야는 외교(국제정치), 경제, 재난, 보건 등의 분야로 정리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제도를

---

20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俄印三国外长举行会晤并签署联合公报 (全文) ,” (2009.10.28.), http://www.gov.cn/jrzg/2009-10/28/content_145096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0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交部长第十次会晤联合公报,” (2010.11.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76932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0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四次会晤联合公报,”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0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7.12.12.), https://www.fmprc.gov.cn/ce/ceun/chn/zgyw/t1518872.htm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창설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표4-1> 러시아·중국·인도의 분야별 주요 소통 창구

분야	소통 창구
외교·안보	• 외교부 국장 회의 • 싱크탱크 교류 • 청년 외교관 교류 • 아시아·태평양 문제에 관한 협의체 • 국방장관회의
경제	• 농업전문가그룹회의 • 상공회의소 회의
재난	• 재난경감·구호 전문가 회의
보건	• 보건의료전문가그룹회의

3)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 논의

러시아·인도·중국은 외무장관 회의 및 정상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국제정치적 이슈에 관한 입장을 꾸준히 논의해왔다. 200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삼국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은 “러시아·인도·중국은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조정하여 공동으로 번영하는 조화로운 세계 건설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세 국가 간 의사소통 진행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206] 이러한 정상들의 의지에 대해 2007년 뉴델리에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의의 공동선언은 최고 정치적 수준에서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려는 세 국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장관들은 러시아·인도·중국의 커지고 있는 국제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그들이 세계의 평화·안보·안정에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대립보다는 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및 세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207]

---

206) 青岛新闻网, (2006.07.18.),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06-07/18/content_7285420.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07)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세 국가는 지구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다자기구에 대한 의견 교환부터 아프가니스탄 문제, 시리아 문제 등 구체적인 지역적 현안까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전략적 협력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다자기구와 관련하여 러시아·인도·중국의 만남에서 초반부터 현재까지 가장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유엔(United Nations) 개편에 관한 이슈이다. 구체적으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회의에서 꾸준히 유엔이 가장 대표적이고 권위 있는 국제기구임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유엔의 역할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인도의 열망인 안보리 진출 노력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것인데,[208]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이후 양국관계가 나빠진 상황 속에서 진행된 제15차 뉴델리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중국은 인도의 유엔 안보리 진출을 지지하였다.[209] 이러한 모습은 러시아와 중국이 안보리 내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서구 국가를 견제하고 그들과 비슷한 대외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인도와의 협력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읽힐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인도·중국은 다자적 수준에서 경제적 이슈와 관련하여 G20,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의 역할도 꾸준히 강조하였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최초로 다자적 수준의 경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G20을 국제 경제 협력의 주요 플랫폼으로 삼는 피츠버그 정상회담의 논의를 환영하였다. 그리고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미래의 경제 거버넌스는 평등성, 효율성 등을 반영하고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목소리와 대표성을

---

208) 이와 관련된 문헌은 다음을 참고; Rohan Mukherjee and David Malone, “India and the UN Security Council: An Ambiguous Ta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8, No. 29 (2013), pp. 110-117.

20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五次会晤联合公报.” (2017.12.12.), https://www.fmprc.gov.cn/ce/ceun/chn/zgyw/t1518872.htm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10]

2012년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중국과 인도 외무장관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환영했으며, 이것이 WTO의 대표성을 높이고 규칙에 기반을 둔 다자무역체제로의 강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흥미로운 점은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이때부터 보호무역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필요성에 주목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도하 개발 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의 틀 속에서 포괄적이 성공적인 자유무역의 진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였다.[211]

이 외에도 다자적 수준에서 세 국가는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2007년 10월 중국 하얼빈에서 열린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이하: CBDR)' 원칙을 포함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교토의정서의 원칙과 조항을 재확인하였다.[212] 이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슈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꾸준한 논의 대상이 되었다. 그 결과 COP(Conference of Parties)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러시아·인도·중국은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에서도 협력적 논지를 견지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인도·중국은 지역이나 개별국가와 관련된 국제정치적 현안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며 소통을 지속하였다. 국제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들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변동적인 지구나 지역 질서에 조응하며 형성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세 국가가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던 국제정치적 현안은 매우 다양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 유럽 내에서 코소보의 지위 문제에 관한 논의,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

---

210)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俄印三国外长举行会晤并签署联合公报 (全文) ," (2009.10.28.), http://www.gov.cn/jrzg/2009-10/28/content_145096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1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2.04.15.), https://www.fmprc.gov.cn/web/zyxw/201204/t20120415_318059.shtml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1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 of India, Russia and China." (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하기 위한 북핵 6자 회담 개최에 대한 논의, 이란 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관한 논의 등이 있었다.[213]

이러한 현안을 제외하고 세 국가의 국제정치적 현안에 관해 주목해야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프가니스탄 문제에 관한 논의이다. 2008년 예카테린부르크 외무장관 회의에서 처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재건 과정의 진전을 환영하고 지속적인 테러 공격과 탈레반과 알카에다의 부활로 인해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문제는 꾸준히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선정되었다.[214] 이러한 것은 중앙 유라시아의 전략적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이 소통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율을 이루기 위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사안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구성국 중 하나인 러시아로부터 비롯된 국제질서 변화의 시도에 관한 세 국가의 논의이다. 이러한 시도 중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과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논의는 과정에서 인도와 중국은 러시아를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지하거나 안보적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는 등의 중립적인 자세를 보였다.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이 발생한 이후 진행된 제9차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인도와 중국이 코카서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러시아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15]

2015년에 진행된 제13차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가 논의 대상 중 하나였는데, 세 국가는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극도의 우려를 표명하고 민스크 협정의 이행과 정치적 수단을 통한 위기의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216] 이처럼 러시아·인도·중국은

---

213) 이러한 의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최초의 연도는 다음과 같다: 코소보 지위 문제(2008 예카테린부르크 외무장관 회의), 한반도 비핵화(2009 벵갈루루 외무장관 회의), 이란 핵 문제(2009 벵강루루 외무장관 회의).

21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1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2009.10.28.), http://www.gov.cn/jrzg/2009-10/28/content_145096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국제정치적 현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의 합치 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 2 절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1) 전략적 비전

전략적 비전과 관련하여 세 국가 사이에 공유되는 주요 목표는 '국제관계의 민주화(國際關係民主化)'와 '다극화(多極化)'이다.[217]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러시아·인도·중국은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특정 국가가 역내의 영향력을 독점하는 것을 견제하며 자신의 세력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218]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국가는 국제관계의 민주화와 다극세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외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은 대외적 환경은 지구나 지역 수준에서의 전략적 행위자는 특정 국가가 주도하는 질서가 아닌 다극 질서(multipolar order)이자, 더 나아가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며 만들어내는 지역적 정치 질서가 모자이크적으로 세계를 구성하는 '다지역(multi-regional)' 질서라고 할 수 있다.[219]

---

216) МИД России, "Совместное коммюнике 13-й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я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2015.02.02.),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582679/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17) Chen Dongxiao and Feng Shuai, 2016, p. 434.

218) 본 지역을 바라보는 러시아·인도·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러시아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부를 자신에게 있어서 '근외지역(Near-Abroad Region/ближнее зарубежье)'으로 받아들인다. 인도는 중앙 유라시아 지역의 중·남부 지역을 '확대 인도(Greater India)' 지역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배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끝으로 중국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 지역 국가들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 '주변외교(周邊外交)' 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219) 신범식,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미 주도 자유민주 질서 회복 vs 러·중 '신형 대국관계' 형성…우크라 전쟁 파장 '신냉전' 가시화," 중앙선데이 (2022.0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2552?sid=102 (검색일: 2022년 7월 1일.).

이러한 두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세 국가가 공유하는 두 개의 전략적 비전 중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세계질서가 특정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것의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220] 여기에서 특정 국가란 구체적으로 냉전 이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구적 수준에서 구축하려 하였던 서방의 국가를 의미하며,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훼손되는 경우는 서방의 의지와 가치인 '서구식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들에게 강요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221]

이처럼 국제관계의 민주화는 서구의 영향력이 필요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러시아·인도·중국의 반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극세계가 실현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관계 민주화를 통해 특정 국가의 세계질서 독점이 방지되었다면 그것은 곧 각 국가가-특히 강대국이-각자의 영향력을 국제 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인식은 러시아·인도·중국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뉴델리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국제관계의 민주화가 다극화된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라는 것에 확신을 표명하였다.[222] 러시아·인도·중국은 모두 특정 국가가 독점하는 세계질서보다는 여러 극으로 구성된 다극질서가 자국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국력 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통한 다극화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223] 실제로 세 국가는 이러한 것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들은 다극화의 촉진을 위한 다자기구인 유엔의 역할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224]

---

220) 倪世雄·王义桅, "试论国际关系民主化,"『国际间题研究』3券 (2002), p. 22.

221) 罗志刚, "全球化视域下的国际关系民主化,"『武汉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 3卷 1期 (2012), p. 83.

222)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07.10.24.), https://mea.gov.in/outoging-visit-detail.htm?5926/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23) 한석희,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구』11권 1호 (2007), p. 358; Veeba Kukreja, "India in the Emergent Multipolar World Order: Dynamics and Strategic Challenges," *India Quarterly*, Vol. 76, No. 1 (2020), p. 10.

224)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

2) 안보적 이익

러시아·인도·중국은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삼자 간 공유되는 안보적 위협을 방지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이익을 추구해 나가고 있다. 이들이 방지하고자 하였던 안보적 위협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여러 환경에 조응하며 유동적으로 설정되었다.

세 국가에게 꾸준히 주목받아 왔던 안보 관련 의제는 바로 테러리즘이다. 세 국가 간 협력의 삼각관계 추동을 알렸던 것으로 평가되는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테러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테러리즘도 국제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라고 인식하며,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삼자 협력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그들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불법 마약 밀매 및 기타 유형의 초국가적 범죄에 맞서 협력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하였다.[225]

마찬가지로 2007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테러리즘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되었다. 본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국제 테러리즘이 계속하여 모든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였고 그것의 형태 진화를 우려하였다.[226] 2008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테러리즘에 더하여 분리주의, 극단주의, 마약 밀매 등에서 초래 가능한 위협에도 대응하고자 하는 세 국가의 의지가 드러났다.[227]

이후 2012년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상술한 안보적 위협에 더하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225)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일).

2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27)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외에도 본 회의에서는 이전에 나온 논의의 연장선에서 지역갈등,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약 밀매, 자연재해 및 인적재해, 재정 및 경제적 불안정, 식량난, 기후변화 등 '전통안보(Conventional Security)'와 '신흥안보(emerging)'를 포함하는 안보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는 이후에 진행된 회의에서도 주요 의제가 되었다.[228]

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2015년 베이징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확장되었는데, 이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모았다.[229]

정보통신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에 대한 세 국가의 인식은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외무장관 회의에서 더욱 발전하였다. 본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여러 원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 중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원칙 제정의 필요성은 주요 강조 사안 중 하나였다. 더불어, 전통안보 문제와 관련하여도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화학 및 생물학적 무기의 테러 용도로의 사용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뜻을 모았다.[230]

2019년 2월 중국 저장성에서 진행된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안보에 대하여 평화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고, 국제 안보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지구 안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협의일치(協商一致)'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관련국의 이익과 관심을 존중되는 과정이어야 함을 밝혔다. 더불어, 신흥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우주 공간의 평화로운 사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231] 그리고

---

228)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2.04.15.), https://www.fmprc.gov.cn/web/zyxw/201204/t20120415_318059.shtml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29) МИД России, (2015.02.02.),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582679/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30)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四次会晤联合公报,"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31)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 外长第十六次会晤联合公报," (2019.02.27.),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1902/t20190227_9337170.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2020년 이후에는 코로나-19 등의 보건문제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안보적 위협에 대해 삼국 외무장관 회담이 이뤄지며 기존보다 더욱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였다.[232]

3) 경제적 이익

러시아·인도·중국은 경제적 필요에 따라서도 전략적 협력을 지속해 왔다. 세 국가의 경제 규모는 지역과 지구에서 모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의 시장 중 하나이며 러시아 역시 에너지, 농업, 군사 기술 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 국가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에너지, 농업,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경제적 협력을 해나갔다. 더불어 세부적인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하는 것과 동시에 세 국가는 모두 중앙 유라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로서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지역 간 연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분야에서의 협력도 이어나갔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세 국가는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블라디보스토크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삼자 간 경제적 협력이 유망함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본 회의에서 교통, 농업, 에너지 및 산업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협력의 중요한 잠재력을 확인하였으며, 세 국가 사이의 경제 교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공감하였다.[233] 이듬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진행된 삼국 정상회담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은 러시아·인도·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인정되었다. 본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세 국가는 경제 사회 발전 추진력이 좋고 상호 보완성이 강하고 경제, 에너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하며 러시아·인도·중국

---

232)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外长第十八次会晤联合公报 (全文) ,” (2021.11.27.), http://www.gov.cn/xinwen/2021-11/27/content_5653707.htm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23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506/t20050603_679130.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은 이러한 유리한 조건을 십분 활용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3자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34]

2006년 정상급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온 세 국가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과 상호 보완의 필요성은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언급되었다. 2009년 벵갈루루에서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중국, 러시아, 인도의 경제협력이 상호보완적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즉, 러시아는 석유와 가스의 중요한 공급국이며, 중국과 인도는 에너지 수입국이지만 산업재와 서비스의 중요한 공급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러시아·인도·중국 간 경제 관계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동시에,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그들의 국가가 육지 면적의 20%, 세계 인구의 39%를 차지하며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국제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였다.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전술한 바와 같은 러시아·인도·중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상호 의존적인 세계에서 세계 경제 거버넌스 메커니즘, 무역 정책, 개발 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235]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구체적인 협력의 내용뿐 아니라 경제 교류의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다자주의 기구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러시아·인도·중국은 세계 무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기구로써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세 국가가 지구적 수준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면 지역적 수준에서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구상 및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다양한 경제 다자주의 협의체에서의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하였다.[236]

---

234) 青岛新闻网, "胡锦涛出席中俄印领导人会晤," (2006.07.18.),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06-07/18/content_7285420.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3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俄印三国外长举行会晤并签署联合公报 (全文) ," (2009.10.28.), http://www.gov.cn/jrzg/2009-10/28/content_145096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36)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문제는 2015년 베이징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МИД России, (2015.02.02.),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582679/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APEC과 관련된 내용은 2016년 모스크바 외무장관 회의 논의

제 3 절 프로젝트 실천

1) SCO

(1) SCO 대강(大綱)

SCO는 1996년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이 모여서 형성시킨 '상하이 5국(Shanghai Five)'을 전신하는 기구이다. 여기에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서 '상하이 5국'은 현재의 SCO로 개편되었다.[237] SCO 회원국들의 초기 목표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들에 대한 공동대응이었다. SCO 회원국들은 인종적 분리주의, 종교적 근본주의 및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2003년부터 SCO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하거나 2004년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지역 반(反)테러 센터(Regional Anti-terrorist Structure)'를 설립하기도 하였다.[238] 이외에도 SCO 회원국들은 국경의 긴장 완화 및 안정적 관리, 마약과 불법무기거래에 대한 공동대응, 경제협력 등을 이어나가고자 한다.[239]

한편, SCO의 역할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SCO는 점차 지역 안보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넘어 역외 세력의 영향력 확장에 대해 대항하고 지역적 수준에서 공유될 수 있는 질서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SCO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이 중앙 유라시아 내에서 영향을 확장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견제를 한다거나, 지역

를 참고하라;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四次会晤联合公报,"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37) SCO, "About SCO," (2022), http://eng.sectsco.org/about_sco/ (검색일: 2022년 10월 29일).

238) 문수언,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 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사회과학논총』13권 (2011), pp. 4-5.

239) 백준기 외, 2010, p. 215.

적 수준에서 전략적 행위자 범주에 속할 수 있는 국가들을 추가로 받아들이는 등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2004년에는 몽골, 2005년에는 인도와 파키스탄이 준회원 국가로 가입하기도 하였다. 이후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은 SCO의 정회원이 되었으며 2022년 이란도 SCO 가입을 위한 의무각서에 서명하였다.[240]

확장된 SCO의 역할과 그에 대한 회원국들의 인식은 2015년 SCO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우파(Ufa) 선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본 선언에서 SCO 회원국들은 SCO가 최근 국제관계 시스템에 영향력 있는 행위자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본 다자기구는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더불어 개별국가에 의한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노력은 국제 안보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끝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SCO의 회원국들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41]

(2)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SCO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이와 같은 SCO의 역할 설정과 확장 등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도·중국은 삼자적 차원에서 SCO의 목표에 적극적인 동참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관계를 활용하여 SC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세 국가는 SCO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언급이 확인할 수 있다.[242] 실제로, SCO 회의에서 논의되고 구체적

---

240) Al Jazeera, “Iran signs memorandum to jo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2022.09.15.),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15/iran-signs-memorandum-join-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29일).

241) SCO, “Ufa Declaration,” (2015.07.10.), http://eng.sectsco.org/documents/ (검색일: 2022년 10월 30일).

242) 가령, 2015년 2월 2일 베이징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었다; МИД России, (2015.02.02.),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582679/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으로 실천하기로 결정된 내용 중 일부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소통과 조율 및 공유의 과정에서 다루는 것들과 겹치기도 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SCO 내에서도 삼국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가령, SCO 회원국들이 한 국가의 일방적인 국제질서 건설에 대항하고자 하는 모습이나 테러리즘 등의 안보적 위협 등에 대항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러시아·인도·중국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SCO 틀 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또 다른 실천은 SCO의 확장이다.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 작동은 2017년 인도뿐 아니라 2022년 이란의 SCO 가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인도와 이란이 SCO에 가입하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사항이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 안건으로 다뤄진 바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장관은 인도의 상하이협력기구(SCO) 옵서버 국가 가입을 환영하면서 인도가 SCO에 대한 상생 기여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243]

2008년에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SCO 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인도의 바람을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장관이 환영하기도 하였다.[244] 2009년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SCO 내에서의 기존 시기보다 발전된 형태의 인도 역할에 대한 모색이 이뤄졌다. 이 회의를 통해 인도는 비록 준회원 국가에 불가했으나, SCO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장관에게 밝히기도 하였다. 인도는 이와 같은 의지를 2009년 SCO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자국의 총리를 파견하면서 밝히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의 외무장관은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인도는 더 나아가 경제 분야에서는 △SCO 비즈니스 포럼, △SCO 에너지 클럽 및 은행 컨소시엄, 안보 분야에서는 △대

---

243)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44)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테러 협력, △SCO-아프가니스탄 연락 그룹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245]

한편, 상술한 바와 같은 인도의 SCO 가입에 대한 논의의 진척이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인도의 SCO 가입이 이뤄지기 1년 전인 2016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인도의 가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 약속되었다. 본 회의에서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인도의 SCO 가입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확인하였고, 인도는 가능한 한 빨리 SCO의 회원이 되어 SCO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러시아·인도·중국 외무장관은 2016년 6월 SCO 타슈켄트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SCO 가입 의무각서 서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동시에 본 회의는 2022년 가입 의무각서에 서명한 이란의 SCO 가입에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246]

한편, 모스크바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문제가 논의된 이후 인도는 SCO 타슈켄트 정상회담에서 SCO 가입을 위한 각서에 서명하였다.[247] 이는 SCO의 확장과 관련된 사안이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틀 속에서 일정 부분 관리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한, 전술한 모습은 인도의 SCO 가입을 중국이 후회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견해와도 일정 부분 대치된다.[248] 물론 인도와 중국 관계가 내포하는 경쟁과 갈등적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인도의 SCO 가입이 중국에 긍정적인 효과만을 준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이 둘 관계의 전략

245)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246)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四次会晤联合公报,”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247)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India's SCO Membership: Prospects & Constraints,” (2016.08.12.), https://www.icwa.in/show_content.php?lang=1&level=3&ls_id=603&lid=545 (검색일: 2022년 10월 30일).

248) Derek Grossman, “China Will Regret India's Entry Int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7.07.24.), https://thediplomat.com/2017/07/china-will-regret-indias-entry-into-the-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 (검색일: 2022년 1월 19일).

적 성격을 고려해 본다면 인도의 SCO 가입을 중국도 일정 수준 수용한 것이다. 그러한 수용 아래에서 인도의 SCO 가입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넘어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에서 사전적으로 조율되었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로써 실천되기로 합의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인도의 SCO 가입은 중앙 유라시아의 주요 SCO를 이끌어가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인도 사이의 사전적 조율 과정을 통해 이뤄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세 국가의 지도자 역시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삼국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인도·중국은 SCO와 같은 중요한 다자간 메커니즘에서 조정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249)]

이처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SCO라는 중앙 유라시아의 다자주의 내에서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습은 러시아·인도·중국이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SCO의 확장을 통해 특정 국가에 의해 형성·주도되는 국제질서를 견제하고, 새로운 국제정치적 문법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인도의 가입이었고, 이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작동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2) BRICS

(1) BRICS 대강(大綱)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이 참여하고 있는 BRICS는 2006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11년 가입)을 제외한 4개의 국가의 외무장관이 회의를 가진 이후 추동된 이후 현재까지 가동되고 있는 비(比)서방 노선/대항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니는 다자주의 움직임이다.

BRICS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 목표는 경제발전이며, 이를 위해 BRICS는 신흥국가들 사이의 경

24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8.12.01.), https://www.fmprc.gov.cn/web/tpxw/201812/t20181201_267774.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제협력 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둘째는 보다 전략적인 목표인데, BRICS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특정한 국가의 정치적 이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지역의 강국들은 BRICS의 틀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 BRICS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지구적 수준에서는 일정 수준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 수준에서는 강대국의 범주에 속한다. 동시에 이들은 미국과 유럽식 민주주의로 대변되는 서방의 민주주의 모델을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 그러한 가운데, BRICS의 국가들은 국내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뿐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자신이 지역 강대국으로서 영향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서방이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경계한다.[250]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이뤄지는 BRICS의 국가 간 협력은 서방에 반대하는 것이기보다 미국과 서구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BRICS 국가들은 미국과 경제적 상호의존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이해관계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RICS 국가들의 협력은 반서방(Anti-west)보다는 대서방(against-west)의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BRICS 국가들이 미국 영향력의 점진적인 후퇴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점차 높여 나가며 미국 등 외부 세력이 가하는 간섭을 차단하고자 한다.[251]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 브릭스 회원국들은 2009년 이후로 13번의 공식적인 만남과 9번의 비공식적 만남을 통해 여러 현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조율 통해 협력의 질과 범위를 모두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252]

(2)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BRICS

BRICS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확장된 형태

---

250) Zaki Laidi, “The BRICS Against the West?,” *Ceri Strategy Papers,* No. 11 (2011), pp. 2-4.

251) 김치욱, “글로벌 세력전이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 대 브릭스(BRICS) 전략을 중심으로,”『국가안보와전략』14권 4호 (2014), pp. 38-39.

252) BRICS 2022 china, “BRICS Countries,” (2022.02.22.), http://brics2022.mfa.gov.cn/eng/gyjzgj/jzgjjj/ (검색일: 2022년 7월 19일).

로 평가될 수 있다.[253] 이러한 이유로는 러시아·인도·중국이 BRICS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큰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인도·중국은 SCO 내부에서와 마찬가지로 BRICS 내에서도 중추적인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254] 우선, 러시아·인도·중국은 BRICS가 추동된 2006년 이전부터 공식/비공식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BRICS의 회원국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BRICS가 추동된 이후에는 러시아·인도·중국은 BRICS 회담에서 다뤄지는 내용을 그들 사이에 진행하는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검토·논의하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전략적인 합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러시아·인도·중국은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삼국 외무장관은 BRICS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향후 논의 사항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255]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BRICS 내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지난 2022년 12월 '프리마코프 리딩 포럼(Примаковские чтения)'에서 진행된 러시아 외무장관 라브로프의 연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러시아·인도·중국이 현재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BRICS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며, 다른 국가들이 가입을 위해 기다리고 있고, 이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다면 BRICS 전체 회원국은 15-17 국가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다.[256]

지금까지 상술한 바와 같은 BRICS 내에서의 러시아·인도·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공유되던 사안이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우한에서 열린 러시아·인도·중국의 외무장관은 오늘날 세계에서 BRICS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세 국가가 이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253) Шевченко Радмила Игоревна, "Объединение БРИКС: этапы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Религиоведение*, Vol. 17 (2016).

254) 러시아·인도·중국의 BRICS 내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Reuters, "Iran applies to join China and Russia in BRICS club," (2022.07.29.),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applies-join-brics-group-emerging-countries-2022-06-27/ (검색일: 2022년 7월 29일).

255)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外长第十八次会晤联合公报(全文)," (2021.11.27.), http://www.gov.cn/xinwen/2021-11/27/content_5653707.htm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256) ТАСС, "Лавров: БРИКС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объединение 15-17 стран, если приня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2022.12.07.), https://tass.ru/politika/16523081 (검색일: 2023년 1월 11일).

가 있음을 강조하였다.[257] 2013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삼국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세 국가는 BRICS 내에서 3국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세 국가의 외무장관은 향후 글로벌 환경에 대한 소통·조정·협력을 이뤄낼 수 있는 BRICS를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인도·중국은 공동 노력을 다할 것을 결정하기도 하였다.[258] 또한, 세 국가는 BRICS 내부에서 효율적인 중추적 기능 수행을 위해 상호 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16년 인도가 BRICS의 의장국이 되는 것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전폭적인 지지를 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259]

한편,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은 BRICS의 확장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규가입 이후 현재까지 BRICS 확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아르헨티나, 이란 등 지역 강국들이 BRICS 가입을 모색함에 따라 BRICS의 팽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SCO와 마찬가지로 BRICS 확장 과정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서방에 대항하는 대외정책적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BRICS의 확장을 옹호하는 가운데,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하고 있는 인도의 선택이 BRICS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260] 인도 역시 아르헨티나의 BRICS 가입 의사를 받아들이는 등 BRICS 확장에 큰 거부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261] 물론 특정 국가의 가입 의사가 BRICS

---

257)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外长第十八次会晤联合公报 (全文) ,” (2021.11.27.), http://www.gov.cn/xinwen/2021-11/27/content_5653707.htm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258)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外长第十八次会晤联合公报 (全文) ,” (2021.11.27.), http://www.gov.cn/xinwen/2021-11/27/content_5653707.htm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259)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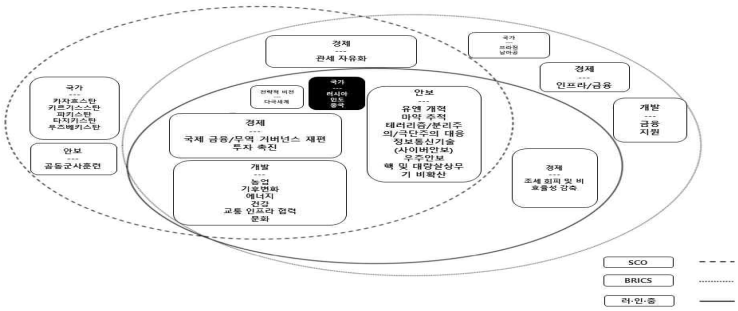
260) Akhil Ramesh, “As China and Russia Champion an Expanded BRICS, India May Have to Pick a Side,” (2022.07.28.), https://infobrics.org/post/36257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261) Sidhant Sibal, “India is receptive of our request for BRICS membership: Argentina envoy Gobbi,” (2022.07.28.), https://www.wionews.com/india-news/indi

회원국에 전달 및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입까지 이어지는 것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아르헨티나가 BRICS 가입을 위해 러시아·인도·중국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진행하는 모습은 이들의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BRICS 내에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사항뿐 아니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SCO·BRICS가 공유하고 있는 주요 의제들을 정리해보면 <그림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두 다자기구 내에서 중추적인 네트워크 역할을 맡고 있다. BRICS와 SCO를 구성하는 개발도상국 중 러시아·인도·중국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공유되는 전략적 비전이나 이익은 이들을 제외한 BRICS와 SCO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이 공유하기에도 G-7으로 대표되는 서방 진영의 선진국들의 그것보다 수용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지구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BRICS와 지역적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SCO를 잇는 가교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BRICS와 SCO는 러시아·인도·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비전과 여러 이익이 실천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자주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1>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와 SCO·BRICS[262)]



---

a-is-receptive-of-our-request-for-brics-membership-argentina-envoy-gobbi-501559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현재 아르헨티나 이외에도 이란, 알제리, 이집트, 튀르키예 등이 BRICS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262) Frank O'Donnell and Mihaela Papa, “India's multi-alignment management a

제 4 절 소결

본 장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의 세 가지 작동 기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통을 통한 전략적 조율 단계에서는 관계 당사국 사이의 경쟁과 갈등 요인을 조율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또한, 러시아·인도·중국은 고위급 수준뿐 아니라 실무진 수준에서도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해 꾸준한 논의를 지속하였다.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단계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은 국제관계 민주화 및 다극세계 구축이라는 전략적 비전 아래에서 공유되는 안보·경제적 이익에 따른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서술한 바와 같은 세 국가 간 협력의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구성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프로젝트의 실천 단계에 세 국가는 SCO와 BRICS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장의 3절에서 살펴본 SCO와 BRICS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지역·지구적 수준에서 실천해 나가고 있는 확장된 형태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세 국가는 상술한 제시한 두 다자기구 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논의된 주제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향후 기구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러시아·인도·중국은 SCO와 BRICS의 확장에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

nd the Russia-India-China (RIC) triangle, *International Affairs*, Vol. 97, No. 3 (2021), p. 812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Ⅴ. 결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앙 유라시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러시아·인도·중국의 특별한 관계에 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틀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유라시아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특징과 동학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복합적 특성을 띠는 세 쌍의 양자 관계로 이루어진 삼각관계이다. 복합적 특성을 띠는 관계란 관계 당사국 사이에 협력·경쟁·갈등 등의 요인 등이 놓여 있는 관계를 의미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관계는 관계 당사국이 단기적 이익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한 것이 아니며 오랜 시간 동안 긴밀한 소통과 조율, 공유와 실천을 통해 발전 및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관계는 고정적이기보다는 관계적·과정적이며, 주어진 것이 아닌 국제정치를 구성하는 여러 단위체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탐구하기 위하여 탈냉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해온 중앙 유라시아의 지역 질서와 그에 대한 세 국가의 개별·양자적 차원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소련의 붕괴 이후 중앙 유라시아에서 나타난 지정학적 힘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던 미국의 목표는 2001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중앙 유라시아의 일부 지역 국가 내에 군사기지를 세움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지역 안보의 안정화를 목표로 했던 러시아·인도·중국 등의 국가 역시 미국의 중앙 유라시아 진출을 용인하였기에 가능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중앙 유라시아의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반체제 운동과 이라크 전쟁 등으로 대변될 수 있는 미국의 영향력 확장, 그리고

이에 대해 이전보다 국력이 신장된 러시아·인도·중국 등 주요 지역 국가들의 반발로 인하여 지역 질서는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러시아-인도, 러시아-중국, 인도-중국의 관계는 크게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관계의 발전은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조율 및 형성 단계에 진입하게 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고 2010년 이후 중국의 공격적인 부상이 가시화되면서 중앙 유라시아 지역 질서는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서진 정책이 인도의 세력권을 침범하는 가운데, 인도와 중국 사이의 관계가 경직되었다. 동시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함께 지정학의 시대가 귀환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략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드러낸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세 국가는 양자관계 조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고, 그 결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조율 및 형성 단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2017년 인도의 SCO 가입에 따라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발전 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발전 단계에 진입하자 2006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던 러시아·인도·중국 정상회담이 두 차례나 이뤄졌으며 기존의 외무장관 회의뿐 아니라 국방장관회의 개최도 합의되었다. 이러한 점은 삼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본 시기 동안 새로운 차원에 진입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263] 새로운 차원에 진입한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계속하여 작동하며 국제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어서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는 Ⅱ장에서 제시한 작동기제인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프로젝트의 실천이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드러냈다.

---

263) ТАСС, “Лавров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Индия и Китай не намерены входить в клинч с Западом,” (2020.06.23.), https://tass.ru/politika/8796357 (검색일: 2022년 11월 8일).

러시아·인도·중국은 ‘소통을 통한 입장의 조율’ 단계에서는 갈등 및 경쟁 요인에 대해 조율을 하고, 소통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며 국제정치적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전략적 비전과 이익의 공유’ 단계에서는 그들 사이에 공유되는 국제정치적 관에 대한 논의와 안보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프로젝트의 실천’ 단계에서는 러시아·인도·중국이 실제로 어떠한 프로젝트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드러냈다. 러시아·인도·중국은 SCO나 BRICS에서의 논의되었거나 논의될 다양한 주제들을 삼자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다자기구 내에서 중추적 네트워크로 기능하고자 하였다. 또한, 러시아·인도·중국은 두 다자기구 내에서 중추적 네트워크로 작동하며 SCO나 BRICS가 회원국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거나 신규 국가 가입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의 주요 행위자인 러시아·인도·중국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독특한 관계를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라는 개념적 틀을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본 연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인도·중국의 특수한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의의도 있다.

본 연구는 러시아·인도·중국의 관계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자 이들 국가에서 발표되는 1차 문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다는 강점을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접근 가능한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충분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가진다. 이러한 한계는 러시아·인도·중국 전략적 협력의 삼각관계가 향후 발전하게 되어 더 많은 자료에 접근이 가능해질 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각국/기구 정부 발표 자료

• 러시아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1997.12.17.). http://www.kremlin.ru/acts/bank/11782 (검색일: 2022년 7월 24일).

_____. “Концепц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2001. 01. 10.). http://www.kremlin.ru/acts/bank/14927 (검색일: 2022년 7월 24일).

_____. “2001 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2001.07.16.). http://www.kremlin.ru/supplement/3418 (검색일: 2021년 9월 19일).

_____.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ей.” (2004.12.03.). http://kremlin.ru/supplement/2097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_____. “Совместная деклара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орядке в XXI веке.” (2005.06.30.). http://www.kremlin.ru/supplement/3660 (검색일: 2022년 2월 12일).

_____. “Выступление и дискуссия на Мюнхен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2007.02.10.).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transcripts/24034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_____.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08.07.15.). http://www.kremlin.ru/acts/news/785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_____. “Стратегия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 2020 года.” (2009.05.19.). http://www.kremlin.ru/supplement/424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_____. “Военн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0.02.05.). http://www.kremlin.ru/supplement/461 (검색일: 2022년 1월 3일).

_____.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2010.10.24.).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46860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Десятилети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артнёр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его развития.” (2010.12.21.). http://www.kremlin.ru/supplement/825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новом этапе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2014.05.20.). http://www.kremlin.ru/supplement/1642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_____.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ндии и Китая,” (2019.06.28.). http://www.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846 (검색일: 2023년 1월 9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азвитии отношений всеобъемлющего партнерства 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2019.07.05.). http://www.kremlin.ru/supplement/5413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 ции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вступающих в новую эпоху, и глобальном у стойчивом развитии.” (2022.02.04.). http://www.kremlin.ru/s upplement/5770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российско-индийское заявлен ие по итогам официального визит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 цию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и Н.Моди «Через довери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к новым горизонтам сотрудни чества».” (2022.10.25.). http://www.kremlin.ru/supplement/50 50 (검색일: 2022년 10월 25일).

_____.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т 31.12.2015 № 683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 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5.12.31.). http://publicatio n.pravo.gov.ru/Document/View/0001201512310038?ysclid=l9m f9lxpf2873142917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_____. “«Россия – Индия: надеж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в меняющемся мире».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о 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В.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Респ ублики Индии Н.Моди.” (2018.10.05.), http://www.kremlin.r u/supplement/5343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_____.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России, Индии и Китая.” (2019.06.28.). http://kremlin.ru/events/president/news/60846 (검색일: 2021년 12월 25일).

_____. “О Стратег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21.07.02.). http://www.kremlin.r u/acts/bank/47046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МИД России. “Декларация о стратегическом партнерстве межд 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Индией.” (2000.0 4.10.). https://mid.ru/ru/maps/in/1732761/ (검색일: 2022년 4

월 3일.)
_____. “Совместное коммюнике 13-й встречи министров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спублики Индия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2015.02.02.). https://mid.ru/ru/foreign_policy/news/1582679/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Концепц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016.01.12.). https://www.mid.ru/ru/foreign_policy/official_documents/1538901/?ysclid=l9mfbocsvf65305815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 “中华人民共和国和印度共和国关系原则和全面合作的宣言.” (2003.06.23.).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23718.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_____. “中国和印度发表《联合宣言》(全文).” (2006.11.22.). https://www.fmprc.gov.cn/chn/pds/ziliao/1179/t281112.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交部长会晤联合公报.” (2008.05.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453582.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交部长第十次会晤联合公报.” (2010.11.15.). https://www.mfa.gov.cn/chn/pds/ziliao/1179/t76932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中俄印外长第11次会晤联合公报(全文).” (2012.04.15.) https://www.fmprc.gov.cn/web/zyxw/201204/t20120415_318059.shtml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交部长第十二次会晤联合公报(全文).” (2013.11.10.). https://www.fm

prc.gov.cn/chn/pds/ziliao/1179/t1098453.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四次会晤联合公报.” (2016.04.19.). https://www.fmprc.gov.cn/nanhai/chn/zcfg/201604/t20160419_8523535.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外长第十五次会晤联合公报.” (2017.12.12.). https://www.fmprc.gov.cn/ce/ceun/chn/zgyw/t1518872.htm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_____. “习近平出席中俄印领导人非正式会晤.” (2018.12.01.). https://www.fmprc.gov.cn/web/tpxw/201812/t20181201_267774.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_____. “王毅谈中俄印三国的共同利益.” (2020.09.11.). https://www.fmprc.gov.cn/wjbzhd/202009/t20200911_361524.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和印度共和国 外长第十六次会晤联合公报.” (2019.02.27.). https://www.fmprc.gov.cn/web/gjhdq_676201/gj_676203/oz_678770/1206_679110/1207_679122/201902/t20190227_9337170.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高举邓小平理论伟大旗帜，把建设有中国特色社会主义事业全面推向二十一世纪.” (1997.09.12.). http://www.gov.cn/test/2007-08/29/content_730614.htm (검색일: 2022년 7월 25일).

_____. “中俄印三国外长举行会晤并签署联合公报（全文）.” (2009.10.28.). http://www.gov.cn/jrzg/2009-10/28/content_1450961.htm (검색일: 2022년 3월 29일).

_____. “江泽民在中国共产党第十六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02.11.17.). http://www.gov.cn/test/2008-08/01/content_1061490_9.htm (검색일: 2022년 7월 25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与印度共和国联合声明.”(2005.04.11.). http://www.gov.cn/gongbao/content/2005/content_64191.htm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_____. “习近平在哈萨克斯坦纳扎尔巴耶夫大学发表重要演讲.”(2013.09.07.). http://www.gov.cn/ldhd/2013-09/07/content_2483425.htm (검색일: 2022년 3월 5일).
_____. “王毅出席中俄印外长视频会晤.”(2020.06.23.). http://www.rmzxb.com.cn/c/2020-06-23/2597180.shtml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_____. “中华人民共和国、俄罗斯联邦、印度共和国外长第十八次会晤联合公报(全文).”(2021.11.27.). http://www.gov.cn/xinwen/2021-11/27/content_5653707.htm (검색일: 2022년 3월 31일).
中华人民共和国驻印度共和国大使馆. “中印签署的防务领域谅解备忘录不针对任何第三方.”(2006.05.30.). http://in.china-embassy.gov.cn/chn/ssygd/zyyhn/jsjl/200605/t20060530_2364747.htm (검색일: 2023년 1월 9일).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 of India, Russia and China.”(2007.02.14.).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0702/t20070214_679167.html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_____. “Joint Stat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India.”(2013.05.20.).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1305/t20130522_679346.html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Joint Statement betwee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

e Republic of India." (2015.05.20.). https://www.fmprc.gov.cn/mfa_eng/wjdt_665385/2649_665393/201505/t20150520_679401.html (2022년 10월 25일).

- **인도**

Headquarters Army Training Command. "Indian Army Doctrine," (2004.10.22.). https://www.files.ethz.ch/isn/157030/India%202004.pdf (검색일: 2022년 1월 3일).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Treaty of Peace, Friendship and Co-operation." (1971.10.24.).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5139 (검색일: 2022년 3월 4일.).

_____. "Annual Report 2000-2001." (2001.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3_Annual-Report-2000-2001.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_____. "Delhi Declaration on Further Consolidation of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2.12.04.).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7677 (검색일: 2022년 8월 18일).

_____. "Annual Report 2003-2004." (2004.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5_Annual-Report-2003-2004.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_____. "Annual Report 2004-2005." (2005.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6_Annual-Report-2004-2005.pdf(검색일: 2022년 8월 1일)

_____. "Joint Communiqué on the results of the informal trilateral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India, Russia and China." (2005.06.02.). https://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2596 (검색일: 2021년 12월 20

일).
_____. “Annual Report 2005-2006,” (2006.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67_Annual-Report-2005-2006.pdf (검색일: 2022년 5월 19일.).
_____. “Joint Communiqué of the Meeting of the Foreign Ministe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Russian Federation.” (2007.10.24.). https://mea.gov.in/outoging-visit-detail.htm?5926/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_____. “A Shared Vision for the 21st Century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8.01.14.). shorturl.at/FUZ39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Annual Report 2008-2009.” (2009.04.01.). http://www.mea.gov.in/Uploads/PublicationDocs/170_Annual-Report-2008-2009.pdf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_____. “Annual Report 2009-2010.” (2010.04.01.). https://www.mea.gov.in/annual-reports.htm?57/Annual_Report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Joint Communiqué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0.12.16.).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5158/Joint+Communiqu+of+the+Republic+of+India+and+the+Peoples+Republic+of+China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India-China Agre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Working Mechanism for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on India-China Border Affairs.” (2012.01.17.).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17963/IndiaChina+Agreement+on+the+Establishment+of+a+Working+Mechanism+for+Consultation+and+Coordination+on+IndiaChina+Border+Aff

air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Annual Report 2011-2012.” (2012.04.01.). https://mea.gov.in/Annual_Reports.htm?57/Annual_Reports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Keynote address by MOS Shri E. Ahamed at First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12.06.12.). http://www.mea.gov.in/Speeches-Statements.htm?dtl/19791. 검색일: 2022년 3월 4일.)

_____. “Joint Statement on the 13th India-Russia Annual Summit: “Partnership for mutual benefit and a better world.” (2012.12.24.).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0993/Joint+Statement+on+the+13th+IndiaRussia+Annual+Summit+Partnership+for+mutual+benefit+and+a+better+world (검색일: 2022년 10월 31일).

_____.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Border Defence Cooperation.” (2013.10.23.). https://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2366/Agreement_between_the_Government_of_the_Republic_of_India_and_the_Government_of_the_Peoples_Republic_of_China_on_Border_Defence_Cooper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Joint Stat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Indi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Building a Closer Developmental Partnership.” (2014.09.19.).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24022/Joint+Statement+between+the+Republic+of+Inia+and+the+Peoples+Republic+of+China+on+Building+a+Closer+Developmental+Partnership (검색일: 2022년 10월 17일).

_____. “Joint Press Statement - Meeting of External Affairs Minister and the Foreign Minister of China (S

eptember 10, 2020).” (2020.09.10.).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2961/Joint_Press_Statement__Meeting_of_External_Affairs_Minister_and_the_Foreign_Minister_of_China_September_10_2020 (검색일: 2023년 1월 3일).

_____. “Joint Statement of the 2nd meeting of the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0.10.28.).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3148 (검색일: 2022년 3월 7일).

_____.“India-China Informal Summit at Wuhan.” (2018.04.28.). https://mea.gov.in/press-releases.htm?dtl/29853/IndiaChina_Informal_Summit_at_Wuhan (2022년 10월 25일);

_____. “2nd India-China Informal Summit.” (2019.10.12.). https://mea.gov.in/incoming-visit-detail.htm?31938/2nd+IndiaChina+Informal+Summit (2022년 10월 25일)

_____. “Joint Statement of the 3rd meeting of the India-Central Asia Dialogue.” (2021.12.19.). https://www.mea.gov.in/bilateral-documents.htm?dtl/34705 (검색일: 2022년 3월 7일).

Indian Ministry of Defense. “Annual Report.” (2005). https://www.mod.gov.in/sites/default/files/MOD-English2005_0.pdf (검색일: 2022년 8월 1일).

Indian National Congress. “India’s National Security Strategy.” (2019.03). https://manifesto.inc.in/pdf/national_security_strategy_gen_hooda.pdf (검색일: 2023년 1월 3일).

- **기타**

외교부. “우즈베키스탄의 중앙아내 위상 및 주요국 관계.” (2008.06.30.). https://overseas.mofa.go.kr/uz-ko/brd/m_8559/down.do?brd

_id=2925&seq=665795&data_tp=A&file_seq=1 (검색일: 2022년 2월 13일).
_____.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 (2020.06.10.). https://bit.ly/3AXLobX (검색일: 2022년 9월 8일).
주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파키스탄 정세동향.” (2008.05.12.). https://overseas.mofa.go.kr/pk-ko/brd/m_3359/view.do?seq=550707&srchFr=&amp%3B (검색일: 2022년 2월 10일).

BRICS 2022 china. “BRICS Countries.” (2022.02.22.). http://brics2022.mfa.gov.cn/eng/gyjzgj/jzgjjj/ (검색일: 2022년 7월 19일).
NATO. “Bucharest Summit Declaration.” (2008.04.03.). https://www.nato.int/cps/en/natolive/official_texts_8443.htm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SCO. “Shanghai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CO.” (2001.06.15.). http://eng.sectsco.org/documents/ (검색일: 2022년 2월 12일).
____. “Declaration by the Head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05.07.05.). http://eng.sectsco.org/documents/ (검색일: 2022년 2월 12일).
____. “Ufa Declaration.” (2015.07.10.). http://eng.sectsco.org/documents/ (검색일: 2022년 10월 30일).
____. “History of the SCO.” (2022). http://eng.sectsco.org/docs/about/faq.html (검색일: 2022년 2월 13일).
____. “About SCO.” (2022). http://eng.sectsco.org/about_sco/ (검색일: 2022년 10월 29일).

○ 단행본

김상배. 2015.『제3세대 중견국 외교론』.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민병원. 2005.『복잡계로 풀어내는 국제정치』.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백준기 외. 2012.『러시아·중국·인도 삼각협력체제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범식 외. 2015.『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경기: 진인진.
윤정현. 2019.『신흥안보 거버넌스- 아세안의 초국가적 위험이슈에 대한 싱가포르의 전략 -』. 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박사학위논문.
전재성 외. 2010.『인도의 외교안보정책과 한ㆍ인도 미래협력방안 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철 책임편집. 2022.『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제정치』.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정재호. 2021.『생존의 기로: 21세기 미·중 관계와 한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원득. 2018.『모디 인도 정부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 동아시아』.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_____. 2021. 미중 경쟁 구도 하 인도 외교정책의 변화 양상과 신남방정책』. 서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현승수 외. 2020.『중·러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 서울: 통일연구원.

Calder, Kent. 2012. *The New Continentalism: Energy and Twenty-First- Century Eurasian Geopolitic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Lo, Bobo. 2008. *Axis of Convenience: Moscow, Beijing, and the New Geopolitics*. Washington: Brookings Institute Press.
Sakwa, Richard. 2008. *Russian Politics and Society: 4th Edition*. London: Routledge.
Jervis, Robert. 2017. *Perception and misperception in international polit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 2010.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llinois: Waveland Press

Kaufman, Edy. 1976. *The Superpowers and Their Spheres of Influenc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London: Croom Helm.

Bull, Hedley. 2012. *The Anarchical Society: 4th editio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Jervis, Robert. 1997. *System Effects: Complexity in Political and Social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nti Bajpai et al (eds.). 2014. *India's Grand Strategy*. New Delhi: Routledge.

Keohane, Robert. 1984. *After Hegemony: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Wolff, Kurt H(eds.). 1950. *The Sociology of Georg Simmel.* Illinois: The Free Press.

○ 논문

강봉구. 2017. “모디 총리 시기 인도-러시아 전략적 파트너십의 진로.” 『대한정치학회보』 25집 1호.

강봉구. 2018. “중국-파키스탄경제회랑(CPEC)의 국제정치.” 『중소연구』 42권 4호.

김국신·이헌경. 2001. “반테러 전쟁과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 『통일정세분석』 10호.

김상배. 2011.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국제정치논총』 51집 3호.

김영진. 2019. “유라시아의 비서구 지역통합 프로젝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일대일로(BRI).” 『슬라브학보』 34권 1호.

김재관. 2016. “21세기 중러 관계의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 『아세아연구』 59권 2호.

김정곤 외. 2021.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한 인접국의 대응 및 전망.”『세계경제 포커스』4권 48호.
김치욱. 2014. “글로벌 세력전이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 대 브릭스(BRICS) 전략을 중심으로.”『국가안보와전략』14권 4호.
김태현. 2013. “중국의 부상과 인도.”『전략연구』통권 59호.
문수언. 2011.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하여 본 러시아와 중국 관계: 러시아의 우려와 대응.”『사회과학논총』13권.
박재적. 2022.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주도 삼자 안보협력과 삼각관계.” 정성철 책임편집,『삼각관계로 바라보는 국체정치』.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백창채. 2011. “미중관계의 장래와 한국 외교.”『한국과 국제정치』27권 4호.
서동주. 2006. “러시아 친디아(Chindia) 三角 安保協力 가능성과 한계 : 동북아한반도에의 전략적 함의.”『국방연구』49권 2호.
서정규. 2015. “‘일대일로’의 지정학: 유라시아를 둘러싼 미중 경쟁.”『성균차이나브리프』3권 3호.
신범식. 2005. “푸틴 러시아의 근외정책: 중층적 접근과 전략적 균형화 정책을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14권 4호.
_____. 2008. “신거대게임으로 본 유라시아 지역질서의 변동과 전망.”『슬라브학보』23권 2호.
_____. 2009. “21세기 러시아의 동맹·우방 정책의 변화와 전망.”『EAI 국가안보패널 보고서』41호 (2009.
_____. 2010a. “한-러‘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한국과 국제정치』26권 1호.
_____. 2010b. “러-중 관계로 본 전략적 동반자관계: 개념과 현실, 그리고 한계.”『한국정치학회보』44권 2호.
_____. 2013. “러-중관계의 전개와 러시아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정책.”『전략연구』20권 59호.
_____. 2015a. “통일한국 등장과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 러시아의 역내 전략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과 한국의 대응.”『전략연구』22권 1호.

_____. 2015b. “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슬라브학보』 30권 2호.
_____. 2021. “부상하는 메가아시아: 역사와 개념.”『아시아리뷰』 11권 2호.
신욱희. 2017. “체제, 관계, 복잡성/복합성, 삼각관계ㅡ지역의 이론과 실천.”『세계정치 (Journal of World Politics)』 26권.
오세정. 2007. “인도, 중국, 미국의 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인도연구』 12권 1호.
이동률. 2019. “1990년대 이후 중국 외교 담론의 진화와 현재적 함의.”『현대중국연구』 21권 1호.
이무성. 2019. “유럽연합(EU)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연구: 양면성과 개념적 정의.”『유럽연구』 37권 2호.
이상준. 2019. “유라시아 지역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과 대립 가능성: 러시아 확대 유라시아 구상과 중국 일대일로를 중심으로.”『러시아연구』 29권 1호.
인남식. 2021.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중동, 서남아시아 정책 재편 신호.”『KIMS Periscope』 247호.
임경훈. 2006. “푸진 집권기 러시아의 대외정책: 실용적 현실주의의 이중성.”『러시아연구』 16권 1호.
전재성. 2014. "국제정치 조직원리 논쟁과 위계론."『국제정치논총』 54권 2호.
주동진. 2018.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국제정치논총』 58권 4호.
하용출·신범식. 2010. “탈냉전기 러시아 국제정치인식의 이론구성적 이해.”『세계지역연구논총』 28권 1호.
한석희. 2007. “중국의 다극화전략, 다자주의외교, 그리고 동북아시아 안보.”『국제지역연구』 11권 1호.
황성우. 2010.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동서 패권주의 가능성 연구.”『국제지역연구』 14권 2호.
_____. 2012. “키르기스스탄의 레몬혁명과 동서 패권주의 가능성 연구.”

『국제지역연구』14권 2호.

倪世雄·王义桅. 2002. “试论国际关系民主化.”『国际间题研究』3券.
罗志刚. 2012. “全球化视域下的国际关系民主化.”『武汉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3卷 1期.

Lukin, A. 2021. “The Russia-China entente and its future.” *International Politics*, Vol. 58.
Ablowitz, Reuben. 1939. "The theory of emergence." *Philosophy of science*, Vol. 6, No. 1.
Basrur, Rajesh. 2017. “Modi's foreign policy fundamentals: a trajectory unchanged.” *International Affairs*, Vol. 93, No. 1.
Bhattacharya, Abanti. 2004. “The fallacy in the Russia-India-China triangle.” *Strategic Analysis*, Vol. 28, No. 2.
Biba, Sebastian. 2021. "Germany's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rom a strategic triangle perspective." *International Affairs*, Vol. 97, No. 6.
Blank, Stephen. 2005. “Primakov's Russia/India/China Triangle Nears Realization.” *Eurasia Daily Monitor*, Vol. 2, Issue. 79.
Caplow, Theodore. 1956. “A Theory of Coalitions in the Tria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24, No. 4.
Chatterjee, Ananya. 2011. "India-China-United States: the post-Cold War evolution of a strategic triangle." *Political Perspectives*, Vol. 5, No. 3.
Chebankova, Elena. 2017. “Russia’s idea of the multipolar world order: origins and main dimensions.” *Post-Soviet Affairs*, Vol. 33, No. 3.
Chen, Xiangming and Fakhmiddin Fazilov. 2018. "Re-centering Central Asia: China’s “new great game” in the old Eurasian heartland." *Palgrave Communications*, Vol. 4, No. 1.

Chenoy, Kamal Mitra and Anuradha M. Chenoy. 2007. “India's Foreign Policy Shifts and the Calculus of Power.”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2, No. 35.

Clarke, Michael. 2013. "China's strategy in “greater Central Asia”: is Afghanistan the missing link?."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40, No. 1.

Cranmer, J. Skyler et al. 2012. “Toward a Network Theory of Alliance Form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8.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Dongxiao, Chen and Feng Shuai. 2016. "The Russia-India-China trio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system." *China Quarterly of International Strategic Studies*, Vol. 2, No. 4.

Edwards, Matthew. 2003. "The New Great Game and the new great gamers: disciples of Kipling and Mackinder." *Central Asian Survey*, Vol. 22, No. 1.

Graham, Thomas. 2020. “China-Russia-US Relations and Strategic Triangles.” *Polis. Political Studies*, Vol. 6, No. 6.

Granovetter, Mark.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78, No. 6.

Haokip, Thongkholal. 2012. “Recent trends in regional integration and the Indian experience.” *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 Vol. 15, No. 4.

Kay, Sean. 2000. “What Is a Strategic Partnership?.” *Problems of PostCommunism*, Vol 47, No. 3.

Keohane, Robert. 1988. “International Institutions: Two Approach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32, No. 4.

Kukreja, Veeba. 2020. “India in the Emergent Multipolar World Order: Dynamics and Strategic Challenges.” *India Quarterly*, Vol. 76 No. 1.

Kuzio, T. 2000. “Geopolitical pluralism in the CIS: The emergence of GUUAM.” *European Security*, Vol. 9, No. 2.

Lake, David. 2003. “The New Sovereignty in International Relation 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5, No. 3.

Lake, David. 2007. “Escape from the State of Nature: Authority a nd Hierarchy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1.

Laidi, Zaki. 2011. “The BRICS Against the West?.” *Ceri Strategy P apers,* No. 11.

Lo, Bobo. 2017. "New Order for Old Triangles? The Russia-China-India Matrix." R*ussie.Nei.Visions*, No. 100.

Markowitz, Jonathan N, and Christopher J Fariss. 2018. “Power, P roximity, and Democracy: Geopolitical Competition in the Int ernational System.”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55, No. 1.

Michalski, Anna. 2019. “Diplomacy in a Changing World Order: T he Role of Strategic Partnerships.” *The Swed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10.

Moret, Erica. 2016. “Effective minilateralism for the EU: What, wh en and how.”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EUISS).*

Mukherjee, Rohan and David Malone. 2013. “India and the UN Se curity Council: An Ambiguous Tale.”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Vol. 48, No. 29.

Munir, Zeeshan and Raju Keshari. 2018. "Russia As A Factor In I ndia-China Relations." *World Affairs: The Journal of Internat ional Issues*, Vol. 22, No. 2.

Nuechterlein, E. Donald. 1976.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 icy: A Conceptual Framework for Analysis and Decision-Mak ing.” *Britis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2, No. 3.

O'Donnell, Frank and Mihaela Papa. 2021. “India's multi-alignmen t management and the Russia-India-China (RIC) triangle.” *In ternational Affairs*, Vol. 97, No. 3.

Pant, Harsh. 2004. "The Moscow-Beijing-Delhi ‘strategic triangle’: An idea whose time may never come." *Security Dialogue*, Vo l. 35, No. 3.

_____. 2006 “Feasibility of the Russia-China-India “Strategi c Triangle. Assessment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Issues.” *International Studies*, Vol. 43, No. 1.

Rahm, Julie. 2001. "Russia, China, India: A new strategic triangle f or a new Cold War?.” *The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Parameters*, Vol. 31, No. 4.

Rousseau, David and Rocio Garcia-Retamero. 2007. "Identity, powe r, and threat perception: A cross-national experimental stud 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5.

Salitsky, Alxexander. 2001. “China, India, Russia: Why a Strategic Triangle?.” *World Affairs: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Issue s*, Vol. 5, No. 1.

Shambaugh, David. 2005. “The new strategic triangle: US and Eur opean reactions to China's rise.”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28, No. 3.

Shin, Beom Shik. 2015. “Russia's Place in the Changing Strategic Triangle in the Post-Cold War Northeast Asia: From an Out cast to a Strategic Player?.”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 ea Studies*, Vol. 22, No. 2.

Thompson, William. 1995. “Principal rivalr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9, No. 2.

Way, Lucan. 2008. “The Real Causes of the Color Revolutions.” *Jo urnal of Democracy*, Vol. 19, No. 3.

Wilkins, Thomas. 2012. “Alignment’, not ‘alliance’-the shifting par

adigm of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oward a conceptual taxonomy of alignmen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No. 1.

Woo, Seongji. 2003. “Triangle Research and Understanding Northeast Asian Politics.” *Asian Perspective*, Vol. 27, No. 2.

Wu, Yu-Shan. 1996. “Exploring Dual Triangles: The Development of Taipei-Washington-Beijing Relations.” *Issues & Studies*, Vol. 32, No. 10.

Zreik, Mohamad. 2022. “Contemporary Geopolitics of Eurasia and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Eurasian Research Journal*, Vol. 4, No. 1.

Го, Чанчао. 2019. “Рик (Россия - Индия - Китай) в систем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достижения и проблемы.” *Вестник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ласт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История и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уки*, No. 2.

Игоревна, Шевченко Радмила. 2016. “Объединение БРИКС: этапы формирова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ерия: Политология. Религиоведение*, Vol. 17.

Курылев, Константин. 2018. “Количественный анализ феномена геополитического плюрализма постсовет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Вестник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Vol. 13, No. 1.

Улугбек, Хасанов. 2005.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й плюрализм и нынешний гегемонизм одной державы."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Кавказ*, Vol. 4, No. 40.

Хуашэн, Чжао. 2019. “Новый треугольник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Китаем, Россией и США.”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Vol 10, No. 2 (2019).

Хуашэн, Чжао. 2019. “«Новый треугольник» в отношениях меж ду Китаем, россией и сша.” *Сравнительная политика*, Vo l. 10, No. 2.

Юлия, Мареева. 2012.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треугольник «Россия-И ндия-Китай» 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ях (теория и ис торическая практика).” *Вестник МГИМО Университета*, Vo l. 5, No. 26.

○ 인터넷 자료

김흥규. 2021. “특집: 아시아의 미래와 전략 (4): 시진핑 시대 중국의 주변 외교 전략.”『아시아 브리프』1권 26호.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전략적.”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d539b1ae79c44d28b3e12e53feb97e6 (검색일: 2022년 3월 10일).

네이버 지식백과. “갈등관리.”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59409&cid=42152&categoryId=42152 (검색일: 2022년 6월 22일).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동반자.” https://ko.dict.naver.com/#/entry/koko/15f8254731a3469082b0f72a7ff563e3(검색일: 2022년 4월 26일).

뉴시스.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대선 난기류?…文정부 내 개최 불발할 듯.” (2022.03.02.).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02_0001778701 (검색일: 2022년 3월 20일).

신범식. “[국제정세 변곡점, 나토 정상회의 D-4]미 주도 자유민주 질서 회복 vs 러·중 ‘신형 대국관계’ 형성…우크라 전쟁 파장 ‘신냉전’ 가시화.” 중앙선데이 (2022.06.2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53/0000042552?sid=102 (검색일: 2022년 7월 1일.).

연합뉴스. “"러시아, 지난해 132억 달러 무기수출".” (2012.02.28.). https:

//www.yna.co.kr/view/AKR20120228119100080 (검색일: 2022년 3월 6일).
연합뉴스. “러', 중앙아 지역 입지 강화 노력 가속화.” (2012.11.06.). https://www.yna.co.kr/view/AKR20121106153400080(검색일: 2022년 3월 6일).
연합뉴스. “인도 "러시아제 첨단 방공미사일 도입"…중국 이어 두 번째.” (2016.05.12.). https://www.yna.co.kr/view/AKR20160512160600080 (검색일: 2022년 3월 6일).
연합뉴스. “중·러, 일대일로-유라시아경제연합 연계 추진.” (2017.07.03.). 2017년 7월 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703093400074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조선일보. “主動作爲(주동작위: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 중국 세계전략의 전환.” (2013.12.0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02/2013120200177.html (검색일: 2022년 3월 5일).
중앙일보. “유라시아 FTA 체결 경쟁에 다급해진 무역업계.” (2018.06.1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26253#home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프레시안. “美 군사력, 中央亞 본격 진출.” (2002.01.1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41293#0DKU (검색일: 2022년 2월 11일).

马加力. “中俄印三角 与美欧并列的新一极？.” (2005.06.10.). http://finance.sina.com.cn/g/20050610/2100119473.shtml (검색일: 2021년 1월 11일).
百度百科. “中国政府白皮.” https://han.gl/BbXCI (검색일: 2022년 1월 15일).
新华网. “习近平出席中俄印领导人会晤.” (2019.06.28.). http://www.xinhuanet.com/politics/leaders/2019-06/28/c_1124685660.htm (검색일: 2022년 3월 30일).

新华网. “中国共产党一百年大事记（1921年7月－2021年6月）.” (2021.06.28.). http://www.xinhuanet.com/2021-06/28/c_1127603399.htm. (검색일: 2022년 7월 26일).

郑必坚. “郑必坚：中国和平崛起新道路和亚洲的未来.” (2003.11.24.), http://news.sina.com.cn/c/2003-11-24/12541176473s.shtml (검색일: 2022년 7월 26일).

中国青年报. “外交部：中印双方有能力实现相互成就，而非彼此消耗.” (2022.08.19.). https://baijiahao.baidu.com/s?id=1741582568799633156&wfr=spider&for=pc (검색일: 2022년 9월 7일).

青岛新闻网. “胡锦涛出席中俄印领导人会晤.” (2006.07.18.). https://www.qingdaonews.com/content/2006-07/18/content_7285420.htm (검색일: 2022년 3월 28일).

人民日报海外版. “党报：习近平所倡“亲诚惠容”周边外交凸显中国传统文化智慧.” (2016.05.05.).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1464944 (검색일: 2022년 10월 24일).

Al Jazeera. “Iran signs memorandum to join Shanghai Cooperation Organisation.” (2022.09.15.). https://www.aljazeera.com/news/2022/9/15/iran-signs-memorandum-join-shanghai-cooperation-organisation (검색일: 2022년 10월 29일).

Aneja, Atul. “At G20 trilateral, China proposes 5G partnership with India, Russia.” (2019.06.29.).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at-g-20-trilateral-china-proposes-5g-partnership-with-india-russia/article28226759.ece. (검색일: 2021년 1월 19일).

_____. “Ladakh face-off | Russia begins discreet moves to defuse India-China tension.” (2020.06.19.). https://www.thehindu.com/news/international/ladakh-face-off-russia-begins-discreet-moves-to-defuse-india-china-tension/article61665938.ece (검색일: 2022년 1월 3일).

Carnegie Endowment. “Address by the Defence Minister Pranab Mukherjee a.” (2005.06.27.).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Mukherjee_Speech_06-27-051.pdf. (검색일: 2022년 8월 3일).

Financial Times. “COP26 agrees new climate rules but India and China weaken coal pledge.” (2021.11.14.). https://www.ft.com/content/c891d4af-f80b-48f0-8b6f-a8763655c936 (검색일: 2022년 8월 25일).

Global Fire Power. “2022 Military Strength Ranking.” https://www.globalfirepower.com/countries-listing.php (검색일: 2022년 7월 21일).

Grossman, Derek. “China Will Regret India's Entry Into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2017.07.24.). https://thediplomat.com/2017/07/china-will-regret-indias-entry-into-the-shanghai-cooperation-organization/ (검색일: 2022년 1월 19일).

Haidar, Suhasini and Ananth Krishnan, “India, China agree on 5-point plan to de-escalate LAC stand-off.” (2020.9.11.).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lac-standoff-india-china-agree-on-5-point-plan-for-resolving-border-tension/article32577886.ece (검색일: 2023년 1월 3일).

Indian Council of World Affairs. “India's SCO Membership: Prospects & Constraints.” (2016.08.12.). https://www.icwa.in/show_content.php?lang=1&level=3&ls_id=603&lid=545 (검색일: 2022년 10월 30일).

Kieninger, Stephan. “The Strobe Talbott Papers at the State Department’s Virtual Reading Room.” (2022.02.02.).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strobe-talbott-papers-state-departments-virtual-reading-room (검색일: 2022년 10월 16일).

Kundu, Nivedita Das. “Russia-India-China: Trilateral Cooperation and Prospects.” (2012.05.14.).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russia_india_china_trilateral_cooperation_and_prospects

/ (검색일: 2022년 3월 27일).
Lukin, Artyom. “How Russia emerged as key mediator in the China-India dispute.” (2022.10.23.). https://www.eastasiaforum.org/2020/10/23/how-russia-emerged-as-key-mediator-in-the-china-india-dispute/ (검색일: 2023년 1월 3일)
Oxford Reference. “great power.” https://www.oxfordreference.com/view/10.1093/oi/authority.20110803095905559 (검색일: 2022년 6월 20일).
Ramesh, Akhil. “As China and Russia Champion an Expanded BRICS, India May Have to Pick a Side.” (2022.07.28.). https://infobrics.org/post/36257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Rej, Abhijnan. “What Good Is the Russia-India-China Triangle for Moscow?.” (2020.09.01.). https://thediplomat.com/2020/09/what-good-is-the-russia-india-china-triangle-for-moscow/ (검색일: 2021년 12월 1일).
Reuter. “Moscow invites Taliban to Afghanistan talks on Oct. 20.” (2021.10.0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moscow-host-afghanistan-talks-oct-20-2021-10-07/ (검색일: 2022년 3월 6일).
_____. “Iran applies to join China and Russia in BRICS club.” (2022.07.29.). https://www.reuters.com/world/middle-east/iran-applies-join-brics-group-emerging-countries-2022-06-27/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Sibal, Sidhant. “India is receptive of our request for BRICS membership: Argentina envoy Gobbi.” (2022.07.28.). https://www.wionews.com/india-news/india-is-receptive-of-our-request-for-brics-membership-argentina-envoy-gobbi-501559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TASS. “Russia and China agree on integration of Eurasian Economic Union, Silk Road projects.” (2015.05.08.). https://tass.co

m/economy/793713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The Times of India. “Russia pitches for India's participation in OBOR.” (2017.12.11.).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russia-pitches-for-indias-participation-in-obor/articleshow/62028052.cms (검색일: 2023년 1월 3일).
_____. “RIC has incredible potential for cooperation: Russian envoy.” (2022.09.04.). https://timesofindia.indiatimes.com/india/ric-has-incredible-potential-for-cooperation-russian-envoy/articleshow/93982504.cms (검색일: 2022년 11월 14일).
The World Bank.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https://datahelpdesk.worldbank.org/knowledgebase/articles/906519 (검색일: 2022년 9월 10일).
World Bank. “GD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most_recent_value_desc=true (검색일: 2022년 7월 21일).

ТАСС. “Лавров заявил, что Россия, Индия и Китай не намерены входить в клинч с Западом.” (2020.06.23.). https://tass.ru/politika/8796357 (검색일: 2022년 11월 8일).
_____. “Лавров: БРИКС может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объединение 15-17 стран, если принять всех желающих.” (2022.12.07.). https://tass.ru/politika/16523081 (검색일: 2023년 1월 11일).
РИА Новости.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ие проекты в 2014 году.” (2014.10.14.). https://ria.ru/20141014/1028257929.html (검색일: 2022년 3월 6일.).
_____. “История пограничного вопрос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Справка.” (2008.07.21.), https://ria.ru/20080721/114550501.html (검색일: 2022년 8월 22일).

English Abstract

Russia·India·China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Minki Jung
Dept. of Political Science & Internationa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situation where the global and regional order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there has been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special relationship formed between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Russia, India, and China. This study has introduced a new conceptual framework called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aiming to analyze this special relationship.

This study defines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as a 't riangle of three pairs of complex relationships characterized by c ooperation, competition, and conflictual. This kind of relationship is relational and procedural rather than fixed or static, and it is a relationship that is formed based on the interaction between va rious units constituting international politics.

A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is built on the basis of inter actions between strategic actors who recognize the necessity of c ooperation under a specific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 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is opera ting with the following steps; coordination of attitudes through co mmunication, sharing of strategic vision and interests, and imple

menting the project.

In order to explore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betwee n Russia, India, and China that appeared in Central Eurasia, this study examines the regional order in Central Eurasia that has flu ctuating since the post-Cold War to the present. And then, this s tudy explores the three states' perceptions toward the regional or der and three pairs of bilateral interactions.

The US goal of filling the geopolitical vacuum that emerged in Central Eurasia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was achi e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2001 War on Terror by establis hing military bases within countries in some regions of Central E urasia. Achieving the aforementioned goal was possible not only with the US efforts but also with the acceptance of US presence i n Central Eurasia by some major regional countries such as Russ ia, India, and China, which aimed at stabilizing regional security t hrough the cooperation with the US.

However, the US attempts to expand its influence politically and militarily, which can be represented by the anti-regime move ment that occurred within the countries of Central Eurasia since 2003 and the Iraq war aroused opposition from those countries, which have increased their power compared to the past. As a res ult, the regional order experienced a change once again.

In order to resist the US expansion and protect their spher e of influence in the region, Russia·India·China decided to develo p their bilateral strategic partnership. This study showed that it i s not a coincidence that Russia-India, Russia-China, and India-C hina relations were developed exceedingly in this period.

Observing these changes, this study assumes that the devel opment of these three bilateral relations had an impact on the fo rmation of the Russia·India·China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M

eanwhile, Declination of the US' influence after 2008 and the rise of China after 2010 had an impact on the change of the regional order. As China's western vector expansion invaded India's sphere of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a and China stiffened. The clash of the sphere of influence of the two major powers arose the concern that the formation of the cooperative triangle could be stagnated. However, as shown in this study,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hree countries that tried to form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continued their efforts to manage and coordinate their bilateral relations.

Meanwhile, the geopolitical era returns with the annexation of Crimea by Russia in 2014 and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Eve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three countries kept their communicating and coordinating their relations. These were possible because the three countries tried to recover their trilateral cooperation to secure their sphere of influence in the region and build a multipolar international order.

Observing the aforementioned changes, it could be assumed that Russia·India·China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has entered a new phase. And finally, with India obtained its membership of SCO,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could enter the completion stage. After the 2017, the Russia·India·China summit, which had not been held since 2006, was held twice.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that entered a new stage continues to operate after the 2022 Russia-Ukraine war, affecting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order.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mechanism of the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Russia, India, and China tried to coordinate their possible conflict and competitive factors both bilaterally and trilaterally. Also, they established an institution for regular meetin

gs and discusse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in the stage of coo rdination of attitudes through communication. And then, they dis cussed their foreign visions and possible fields of cooperation to achieve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shared among them in t he stage of sharing strategic visions and interests.

Finally, this study revealed that SCO and BRICS are the proj ects implemented by Russia, India, and China. As this study show s, Russia, India, and China's triangular relationship operates as a pivotal network within the two multilateral organizations and guid e SCO and BRICS members to discover new agendas for cooperat ion. Russia, India, and China share and communicate various top ics discussed or to be discussed in the SCO and BRICS at a trilat eral level. Also, this study shows that Russia·India·China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plays an important role when SCO and B RICS sought to expand their membership.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sought to analyze the unique relationship formed between Russia, India, and China, whi ch are major actors in international politics, with the novel conc eptual framework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Keywords : Russia, India, China, Central Eurasia, Strategic Relatio nship, Strategic Partnership, Strategic Cooperative Triangle

Student Number : 2020-22918